園林
果實
池沼
舟楫
橋梁
燕飮

杜諺 十五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五

園林古詩三首　律詩二十四首

樂遊園歌 甫ㅣ自註晦日賀蘭楊長史ㅅ筵에醉中作이라

樂遊古園崒森爽 烟緜碧草萋萋長 樂遊ㅅ넷園ㅣ 노파 서늘ᄒᆞ니 ᄂᆡ 버므렛ᄂᆞᆫ ᄑᆞ른 프리 다복다복기 기럿도다 公子華筵勢

最高秦川對酒平如掌 ○公子ᄂᆞᆫ 指長史ㅣ라 公子의 빗난 돗기 勢ㅣ ᄀᆞ장 노ᄑᆞ니 秦川에 수를 相對ᄒᆞ니 平호미 手掌 ᄀᆞᄃᆞ도다 長生木瓢示

真率更調鞍馬狂歡賞 長生木瓢ᄂᆞᆫ 瓢柄ㅣ 循長而生者ㅣ니 蓋

用凵酌酒ᄒᆞ니卽是真率也ㅣ라○길에내악ᄃᆞᆫ나모바근真率호ᄆᆞᆯ뵈ᄂᆞ니다시기르

마지ᄒᆞᆫᄃᆞᆯ調習ᄒᆞ야어러이즐겨賞玩ᄒᆞᄂᆞ다

青春波浪芙蓉園

白日雷霆夾城仗

芙蓉園ㅣ在曲江ᄒᆞ니라開元時예玄宗ㅣ築夾城ᄒᆞ되自大明宮으로至曲江芙蓉園ᄒᆞ고天子ㅣ來幸其中ᄒᆞ니라雷霆은儀仗車馬之聲이라○青春엣믌겨른芙蓉園ㅣ오白日엣雷霆ㅅ소리ᄂᆞᆫ夾城엣儀仗ㅣ로다

閶闔晴開詄蕩蕩曲江翠幕排銀牓

詄은音迭ᄒᆞ니詄蕩蕩은天體堅清之狀ㅣ라銀牓은額字ㅣ라○閶闔을갠나래여니詄蕩蕩ᄒᆞ고曲江ㅅ프른帳幕앤銀牓ㅣ버럿도다

拂水低回舞袖翻緣雲清切

歌聲上 므를뻘텨나ᄌᆞ기힛도는춤츠는수
매두위잇고구루믈바라淸切ᄒᆞᆫ놀
옛소리오
ᄅᆡ놋다 却憶年年人醉時只今未醉已先
悲 도ᄅᆞ혀혀마다사ᄅᆞᆷ醉ᄒᆞᆫ뎐지글ᄉᆞ랑코
이제醉티아니ᄒᆞ야셔ᄒᆞ마몬져슬노라
數莖白髮那拋得百罰深盃亦不辭 두어줄
곳센머
리러리를어느ᄇᆞ리리오온번罰ᄒᆞ
눈기픈잔을ᄯᅩ마다아니ᄒᆞ노라 聖朝已
知賤士醜一物自荷皇天慈 賤士一物은者
甫ㅣ自謂나上
句ᄂᆞᆫ言朝廷ㅣ知甫의過惡ᄒᆞ야ᄡᅳ디아니
ᄒᆞᆯ시라下句ᄂᆞᆫ言甫ㅣ論房琯ᄒᆞ다가天子
ㅅ恩慈를니블시라○聖朝ㅣᄒᆞ마賤士의
더러우믈아ᄅᆞ시니一物이스스로皇天ㅅ

恩慈ᄅᆞᆯ 니벳노라 此身飮罷無歸處獨立蒼茫自詠詩蒼茫은 荒寂皃ㅣ라 ○이 ᄆᆞ미 술 머굼 ᄆᆞᆺ고 갈 ᄃᆡ 업서 ᄒᆞ오아 셔셔 괴외히 내 그를 입노라

阻雨不得歸瀼西甘林

三伏適已過驕陽化爲霧驕陽은 녀릆 ᄀᆞᆺ 陽ᄀᆡ라 ○三伏ㅣ 마초아 ᄒᆞ마 디나니 驕陽ㅣ 變化ᄒᆞ야 霧雨ㅣ 도외도다 欲歸瀼西宅阻此江浦深瀼西ㅅ 지븨 가고져 ᄒᆞ나 江浦의 기ᄑᆞ메 阻隔호라 이 壞舟百板拆峻岸復萬尋八尺曰尋ㅣ라 ○헌 ᄇᆡ는 온 너리 ᄠᅥ뎻고 노ᄑᆞᆫ

두늘근任萬尋이나ᄒᆞ도다 篙工初一棄恐泥勞寸心의들

ᄒᆞᆯ사ᄅᆞ미처어ᄆᆡᄒᆞᆫ번ᄇᆞ리니泥滯ᄒᆞ야寸心을잇블가저토다 佇立東城

隅悵望高飛禽 此ᄂᆞᆫ言阻於渡涉ᄒᆞ야恨不如飛禽也ㅣ라○東城人모

ᄒᆡ오래셔셔노피ᄂᆞ라가ᄂᆞᆫ새ᄅᆞᆯ슬허ᄇᆞ라노라 草堂亂玄圃不隔

崑崙岑 草堂ㅣ玄圃와ᄒᆞ야相亂ᄒᆞ니崑崙ㅅ뫼과限隔디아니ᄒᆞ니라 昏

渾衣裳外曠絕同層陰 此ᄂᆞᆫ言所立之外ᄂᆞᆫ皆陰昏也ㅣ라○어

드퀴내옷밧근먼ᄯᅥ히ᄒᆞᆫ가지로여러봀陰氣로다 園甘長成時三寸

如黃金 위연ᄒᆞᆫ柑子ㅣ조ᄅᆞᆯᄢᅢ기리세寸만ᄒᆞ야미치黃金ᄀᆞᆮᄂᆞ니라 諸侯

舊上許廠貢傾千林 許ᄂᆞᆫ 甘子上貢人數ᄂᆞᆫ 글워리라○諸侯ㅣ 비

許稀ᄅᆞᆯ 올이니 그 貢올 ᄌᆞ믄 수프를 기우러ᄒᆞ더니라 邦人不足重所

迫豪吏侵 言邦人ㅣ逼於豪吏ᄋᆡ 侵奪ᄒᆞ야 不貴甘林也ㅣ라○이ᄀᆞ올 사ᄅᆞ

ᄆᆡ 足히 重히 너기돌 아니ᄒᆞᄂᆞ니 豪吏ᄋᆡ 侵奪호매 逼迫ᄒᆞ예니라 客居暫封

殖日夜偶瑤琴 偶瑤琴은 甘子 심거 瑤琴과 ᄒᆞᆫ뒤 두질시라○나그내로

사로매 잠간 시거 낫 밤 믈 瑤琴과 ᄡᆞᆨᄒᆞ야 뒷다라 虛徐五株態側塞

煩胸襟 此ᄂᆞᆫ 阻雨ᄒᆞ야 가보디 못ᄒᆞᆯ서 더놈 기내 ᄆᆞᅀᆞᆷ애 연쳐셰라ᄒᆞ니라○드

못ᄒᆞᆫ 다ᄉᆞᆺ 株ㅅ 양지 가ᄉᆞ매 칙칙기 어즈러어 ᄃᆞᆷ겨셰라 焉得輟兩足杖

藜出嶇嶔言雨ㅣ止어든杖藜出嶇嶔之山而歸甘林也ㅣ라○엇뎨시러

곰빗바리궂거든도토랏디펴ᄂᆞᆫ푼뫼ᄒᆞ로나가려료條流數翠實偃

息歸碧潯나못가디예흘려프른여르믈헤와프른믌ᄀᆞ의가히즈려셔쉬요

리라拂拭烏皮几喜聞樵牧音令兒快搔背脫

我頭上簪거믄가ᄎᆞ로ᄆᆡᆼᄀᆞ론几를스저ᄒᆡ여셔나모지며쇼머기ᄂᆞᆫ놀앳

소리를즐겨듣고아ᄒᆡ로훤히등어리글키고내머리우흿빈혀를바사ᄇᆞ료리라

甘林

捨舟越西岡入林解我衣自東屯으로乘舟ᄒᆞ야來于瀼西也ㅣ

라○비브리고西ㅅ녀믜홀나이수프래드러내오ᄉᆞᆷ바소라 青芻適馬性 好鳥知人歸 프른ᄭᅩᆯ리ᄆᆞᆯ性에마ᄌᆞ니됴ᄒᆞᆫ새사ᄅᆞ미도라오ᄆᆞᆯ아ᄂᆞ놋다 晨光映遠岫 夕露見日晞 새뱃비치먼뫼그리비최엿고 나죗이스른ᄒᆡᄅᆞᆯ보아ᄆᆞᄅᆞ놋다 遲暮少寢食 清曠喜荊扉 늘거셔ᄌᆞᆷ과밥먹기와져그니몱고훤ᄒᆞᆫ荊扉ᄅᆞᆯ즐기노라 經過倦俗態 在野無所違 倦俗態ᄂᆞᆫ困於俗人의薄惡也ㅣ라○디나ᄃᆞᆫ뇨매俗人의양ᄌᆞ애ᄀᆞᆺ가ᄒᆞ다니기해와이쇼니ᄆᆞᅀᆞ매어그르츤배업도다 試問甘藜藿 未肯羨輕肥 藜藿ᄋᆞᆯᄃᆞᆯ히너교ᄆᆞᆯ비르서ᄂᆞᆫ고가ᄇᆡ야온옷과ᄉᆞᆯ진ᄆᆞᆯ

브러호ᄆᆞ란즐기디아니ᄒᆞ노라 喧靜不同科出處各天機 喧雜ᄒᆞ며寂靜호미科等ㅣᄀᆞᆺ디아니ᄒᆞ니 나구실ᄒᆞ며隱處호미제여곰天機니라

勿矜朱門是陋此白屋非 朱門은公卿之門ㅣ라○블근칠ᄒᆞᆫ門으란올ᄒᆞ니라ᄒᆞ야자랑ᄒᆞ고이새지브란외다ᄒᆞ야더러이너기디말라

明朝步隣里長老可以依 이튼날아ᄎᆞᄆᆡ이우제거로니늘근사ᄅᆞᆷᄃᆞᆯ히可히브텀직ᄒᆞ도다

時危賦斂數脫粟爲爾揮 時節ㅣ危亂ᄒᆞ야賦斂ㅣᄌᆞᄌᆞ니것바ᄉᆞᆫ조ᄡᆞᄅᆞᆯ너희ᄅᆞᆯ爲ᄒᆞ야휫노라

相携行豆田秋花藹菲菲 菲菲ᄂᆞᆫ茂也ㅣ라○서르자바콩바ᄐᆡ녀보니ᄀᆞᅀᆞᆳ고지盛ᄒᆞ야菲

菲ᄒᆞ도다 子實不得喫 貨市送王畿 言豆雖結實而不得食也

ㅣ니라○여르믈 시러 먹디 몯ᄒᆞ고 財貨ᄅᆞᆯ 자 王畿로 보내ᄂᆞ다 盡添軍旅

用 迫此公家威 言民無餘貨ᄒᆞ야 以供軍須ᄒᆞ니 此乃迫公家之威逼也

ㅣ라○다 軍旅人ᄋᆡ 쁘매 더으ᄂᆞ니 이 구읫 威嚴에 逼迫ᄒᆞ 애로다 主人長跪

辭 戎馬何時稀 主人ㅣ 기리 ᄭᅮ러 셔 닐오ᄃᆡ 戎馬ᄂᆞᆫ 어느 時節에 드믈려

뇨ᄒᆞᄂᆞ다 我衰易悲傷 屈指數賊圍 내 늘거 수이 슬허ᄒᆞ노니

솑가라ᄀᆞᆯ 구펴 盜賊 ᄢᅳ렷ᄂᆞᆫ ᄃᆡᄅᆞᆯ 혜노라 勸其死王命 愼勿遠奮

飛 그 님금 命ᄒᆞ샨 이레 주거 삼가 머리 ᄂᆞ라가디 말라 勸ᄒᆞ노라

、奉陪鄭駙馬韋曲 二首

韋曲花無賴家家惱殺人 고디사ᄅᆞᆷ믜ᄋᆞ 몰어조럽게ᄒᆞᆯ시 無賴라ᄒᆞ다○韋曲엣고ᄌᆞᆯ依賴ᄒᆞᆯ줄 업도다집마다셔사ᄅᆞᆷ몰ᄒᆞᆫ놀이ᄂᆞᆺ다

淥樽須盡日白髮好禁春 好禁春은白髮ㅣ最景 에맛디아니ᄒᆞ야遊賞 몯ᄒᆞᆯᄃᆞᆺᄒᆞ뎌南ㅣ붓그리디아니ᄒᆞ야즐겨 노니이이러시라○淥樽으로모로매나ᄅᆞᆯ 다ᄋᆞ도록머굴디니혠머 리보몰도뵈이긔ᄂᆞ다

石角鉤衣破藤枝刺眼新 ᄃᆞᆯᄇᆞ른오ᄉᆞᆯ거위여헐우고藤 ㅅ가지ᄂᆞᆫ누늘ᄲᆞᆯ어새롭도다

何時占叢竹頭戴小烏巾 어느제펼깃대ᄅᆞᆯ占得 ᄒᆞ야머리예져근거믄

頭巾을 쓰고 이시려뇨

野寺垂楊裏 春畦亂水間 뫼해 뎌른 드린 버듨 소ᄀᆡ오 봆 받 두듥은 어즈러운 믌 ᄉᆞ이로다

美花多映竹 好鳥不歸山 됴ᄒᆞᆫ 고ᄃᆡ 해 대예 비취엿고 됴ᄒᆞᆫ 새 뫼ᄒᆡ 가디 아니ᄒᆞ야 잇도다

城郭終何事 風塵豈駐顏 言奔走城郭風塵間ㅣ易爲老也ㅣ라 ○城郭人 안해 ᄂᆞᆫ ᄆᆞᄎᆞᆷ매 므스 이리 이시리오 風塵ㅣ 어느 ᄂᆞᄎᆞᆯ 머믈우리오

誰能共公子 薄暮欲俱還 此ᄂᆞᆫ 甫ㅣ欲留駐於此也ㅣ라 ○뉘 能히 公子와 다뭇ᄒᆞ야 어으르메 ᄒᆞᆷᄭᅴ 도라 가고져 ᄒᆞ리오

陪鄭廣文遊何將軍山林十首

不識南塘路今知第五橋 南塘ㅅ길흘아디몯ᄒᆞ다니이제第五橋를알와라 名園依綠水野竹上青霄 일훔난위안ᄒᆞᆫ프른므를브텻고미햇대ᄂᆞᆫ프른하ᄂᆞᆯ로오ᄅᆞ놋다 谷口舊相得濠梁同見招 鄭子眞ㅣ居谷口ᄒᆞ니比廣文ᄒᆞ니라 莊子ㅣ與惠子로同遊濠梁ᄒᆞ니比將軍山林ᄒᆞ다 ○谷口를녜브터相得ᄒᆞ가니濠梁애ᄒᆞᆫᄢᅴ블러ᄂᆞᆯ보다 平生爲幽興未惜馬蹄遙 平生애幽閑ᄒᆞᆫ興을爲ᄒᆞ야물바리머리갈이를앗기디아니ᄒᆞ노라

百頃風潭上千章夏木淸大材曰章이라○ᄀᆞ이럼만ᄒᆞᆫ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못우희 즈믄 낫 녀ᄅᆞᇝ 남기 ᄆᆞᆰ도다 早枝低結子接葉暗巢鶯ᄂᆞᆽ가온 가지엔 미존 여르미 ᄂᆞ조ᇰᄒᆞ고니 은니 폐ᄂᆞᆫ 깃기섯ᄂᆞᆫ 곳고리 어득ᄒᆞ얏ᄃᆞ다 鮮鯽銀絲膾香芹碧澗羹銀실ᄀᆞᆺᄒᆞᆫ 膾ᄂᆞᆫ 新鮮ᄒᆞᆫ 鯽魚ㅣ고 ᄑᆞᄅᆞᆫ 시내헷 거스론 ᄆᆡᆼᄀᆞᆫ 羹은 곳다온 미나리로다 飜疑柂樓底晚飯越中行柂ᄂᆞᆫ 正船木也ㅣ니 柂樓ᄂᆞᆫ 船上人樓ㅣ라○도로혀 疑心ᄒᆞ되 柂樓ㅅ 미틔셔 나죗밥 먹고 越人中에 셔녀ᄂᆞᆫ 가ᄒᆞ노라

萬里戎王子何年別月支戎王子ᄂᆞᆫ 月支國人花名ㅣ라○萬

里옛 戎王子ㅣ 어느 ᄒᆡ예 月支로셔 여희여 오니오 異花開絶域滋蔓匝清池 奇異ᄒᆞᆫ 고지 먼 ᄃᆡ 애셔 픠더니 퍼뎻ᄂᆞᆫ 너추리 믈ᄀᆞᆺ 모ᄉᆞᆯ 횟돌앳도다

漢使徒空到神農竟不知 言張騫ㅣ使西域ᄒᆞ야不得此花ᄒᆞ고 神農人本草애亦不載ᄒᆞ니라○漢人使者ㅣ ᄒᆞᆫ갓 뷔여 가고 神農도 ᄆᆞᄎᆞ매 아디 몯ᄒᆞ니라

露翻兼雨打開坼漸離披 이스레 두우킈며 비 듣믈 조쳐 ᄒᆞ니 퍼 漸漸 퍼뎻도다

旁舍連高竹疎籬帶晚花 ᄀᆞ 잇ᄂᆞᆫ 지븐 노ᄑᆞᆫ 대 서리예 니엣고 설핀 울흔 나죗 고즐 帶ᄒᆞ얏도다

碾渦深淺馬藤蔓曲藏蛇 碾渦

ᄂᆞᆫ水ㅣ回流ㅣ如碾也ㅣ라○믌뉘누리ᄂᆞᆫ 기펴ᄆᆞ리좀기고藤人너추른고바ᄫᅵ야몰

갈맷도다

詞賦工無益 山林跡未賒

이ᄂᆞᆫ그를잘지오미쇽절업슬서山林에歸隱호리라ᄒᆞ다○詞賦ㅣ바지로이ᄒᆞ야도利益호미업스니山林에갈자최머디아니ᄒᆞ니라

盡拈書籍賣 來問爾東家

書冊을다자바다가ᄑᆞ라네東녁지블와무러사로리라

剩水滄江破 殘山碣石開

此ᄂᆞᆫ言將軍ㅣ引水作池ᄒᆞ고又作假山也ㅣ라○나ᄆᆞ므른滄江을허러가綵취오고殘微ᄒᆞᆫ뫼ᄒᆞᆫ碣石ᄀᆞ티여렛도다

垂風折笋 紅綻雨肥梅

프른거시드려시니ᄇᆞᄅᆞ애것笋ㅣ것거

ᄃᆞᆺ고 블근 거시 ᄣᅥ뎌시니 비예 梅花ㅅ 여르미 ᄉᆞᆯ지도다

銀甲彈箏用金魚換酒来 銀으로 ᄆᆡᆼᄀᆞ론 ᄉᆞᆫ甲은 箏ᄩᅡ매 ᄡᅳᄂᆞ니 金魚帶로 수를 밧과오ᄂᆞ다

興移無洒掃隨意坐蒼苔 乘興ᄒᆞ야 올마 ᄡᅳ어리 아니ᄒᆞ야 ᄠᅳ들 조차 프른 이ᄭᅴ 안조라

風磴吹陰雪雲門吼瀑泉 ᄇᆞᄅᆞᆷ 부ᄂᆞᆫ 돌ᄃᆞ리옌 어드운 누니 블리이고 구룸 낀 山門엔 瀑布ㅣ 우르ᄂᆞᆺ다

酒醒思卧簟衣冷欲裝緜 수리 ᄭᆡ어 ᄂᆞᆯ사ᄐᆡ 눕고져 ᄉᆞ랑ᄒᆞ고 오시 서늘ᄒᆞᆯᄉᆡ 소오ᄆᆞ로 ᄯᅮ미고져 ᄒᆞ노라

野老來着客河魚不取錢只疑淳朴處自有

一山川 미햇늘근사ᄅᆞᆷ미와나그녈보아ᄀᆞ ᄅᆞᆫ멧고기예도ᄂᆞᆯ밧디아니ᄒᆞᄂᆞ니 오직巢心ᄒᆞ뒤淳朴ᄒᆞᆫ仕히ᄉᆞ ᄉᆞ로ᄒᆞᆫ山川ㅣ잇ᄂᆞᆫ가ᄒᆞ노라

棘樹寒雲色茵蔯春藕香 棘樹ᄂᆞᆫ춘구룸빗 ᄀᆞᆮ고茵蔯은봆蓮 ㅅ불휘곳다 온ᄃᆞᆺᄒᆞ도다

脆添生菜美陰益食簞凉 簞ᄂᆞᆫ 盛飯 竹器라生菜ᄂᆞᆫ指茵蔯ㅣ라陰은棘樹之陰 也ㅣ라○보ᄃᆞ라온生菜ㅣ됴ᄒᆞ니ᄅᆞᆫ더이 받ᄂᆞ니ᄀᆞᄂᆞᆯᄒᆞᆫ밥다ᄆᆞᆫ그 르셧서늘ᄒᆞ믈더으ᄂᆞ다

野鶴淸晨出山精白日藏 山精은如人ᄒᆞ니一足ㅣ오長ㅣ三 四尺ㅣ니食山蠏ᄒᆞ고夜出晝藏ᄒᆞ ᄂᆞ니라○미햇鶴은믈ᄀᆞ새ᄢᅵ 볏고뫼아리ᄂᆞᆫ나죄갈맷도다

一石林蟠水府

百里獨蒼蒼 돌인ᄂᆞᆫ 수프레 水府ㅣ 서렛ᄂᆞ니 百里예 ᄒᆞ올로 퍼러ᄒᆞ얏도다

憶過揚柳渚走馬定昆池 버드나모 션 믌ᄀᆞᆺᄋᆞ로 디나 定昆池로 ᄆᆞᆯ 돌여오던 이ᄅᆞᆯ ᄉᆞ랑ᄒᆞ로라

醉把青荷葉狂遺白接䍦 青荷葉은 酒盃라 白接䍦ᄂᆞᆫ 巾也ㅣ라 이ᄂᆞᆫ ᄉᆞᆯ 먹노라 울워니 頭巾ㅣ 버서 덜시라 ○ 醉코 프른 蓮니플 자바 어러 이 白接䍦ᄅᆞᆯ 버서디요라

剌船思郢客解水乞吳兒 郢客吳兒ᄂᆞᆫ 비달호ᄂᆞᆫ 사ᄅᆞ미라 乞ᄋᆞᆫ ᄂᆞᆫ 丘旣反ᄒᆞ니 너출시라 言欲得郢客ᄒᆞ야 剌船而遊ᄒᆞ다니 吳兒ᄅᆞᆯ 己與之也ㅣ라 ○ 뱃대 디ᄅᆞᄂᆞᆫ 郢客ᄋᆞᆯ ᄉᆞ랑ᄒᆞ다니 믈아

ᄂᆞᆫ 못ᄉ아ᄒᆡᄅᆞᆯ 주ᄂᆞ다

坐對秦山晩江湖興頗隨 秦山ᄉ 나조ᄒᆞᆯ 안자셔 相對ᄒᆞ야쇼뒤 江湖앳 興心이 ᄌᆞ모 좃ᄂᆞ다

床上書連屋階前樹拂雲 床우흿 書冊ㅣ 지븨 니엿고 階砌ㅅ 알ᄑᆡᆺ 남ᄀᆞᆫ 구루믈 ᄠᅥᆯ티ᄂᆞᆺ다

將軍不好武稚子總能文 將軍ㅣ 武事를 즐기디 아니ᄒᆞ니 져믄 아ᄃᆞ라 다 그를 能히 ᄒᆞᄂᆞᆺ다

醒酒微風入聽詩靜夜分 술 ᄭᆡ올 微微ᄒᆞᆫ ᄇᆞᄅᆞ미 드ᄂᆞ니 글 닑ᄂᆞᆫ 소릴 드로니 家靜ᄒᆞᆫ 바미 ᄂᆞᆫ호ᄂᆞᆺ다

絺衣掛蘿薜涼月白紛紛 紛紛은 蘿薜ㅅ 그르메라 ○ 츩오ᄉᆞᆯ 蘿薜에 거로니 서늘ᄒᆞᆫ ᄃᆞᆯ비치 하야ᄒᆞ야 어즈럽도다

幽意忽不愜歸期無奈何 言欲還而幽賞之 意ㅣ忽然不愜也

ㅣ라 ○幽僻ᄒᆞᆫ ᄠᅳ디 忽然히 맛디 아니ᄒᆞ

니 도라갈 期約ㅣ라 엇뎨ᄒᆞ려뇨 호미 업도

다 出門流水住回首白雲多 此ᄂᆞᆫ 欲還而羨 此水雲也ㅣ라

○門의 나 보니 흐르ᄂᆞᆫ 믈도 잇고 머

리 도ᄅᆞ혀 보니 힌 구룸도 하도다 自笑燈

前舞誰憐醉後歌 블 현 알ᄑᆡ셔 춤 츠던 이ᄅᆞᆯ 내 웃노니 醉ᄒᆞᆫ 後에 브르

던 놀애ᄅᆞᆯ 뉘 愛憐ᄒᆞ려뇨 祇應與朋好風雨亦來過 오직 당당

이 버드로 다ᄆᆞᆺᄒᆞ야 ᄇᆞ ᄅᆞᆷ비예도 ᄯᅩ 올디로다

、重過何氏五首

問訊東橋竹將軍有報書倒衣還命駕高枕乃吾廬 言問訊而得將軍의報書ᄒᆞ고卽命駕而來ᄒᆞ야高枕而卧ᄒᆞ니卽同吾家也ㅣ라○東橋앳대를무로니將軍ㅣ對荅ᄒᆞᆫ글워리잇도다오ᄉᆞᆯ갓ᄀᆞ로니버도로ᄉᆞᆯ위ᄆᆞ여타와벼개노피ᄇᆞ여누우니내집곤도다

花妥鶯捎蝶溪喧獺趁魚 妥ᄂᆞᆫ江東人ㅣ謂落爲妥ㅣ니言花落也ㅣ라○고지ᄠᅥ러디니곳고리나비ᄅᆞᆯ티고시내우르니水獺ㅣ고기ᄅᆞᆯᄧᅩᆺ놋다

重來休沐地真作野人居 野人ᄋᆞᆫ甫ㅣ自謂라이ᄂᆞᆫ將軍休沐ᄒᆞᄂᆞᆫᄯᅡ히내집곤도다ᄒᆞᆯ시라○쉬며沐浴ᄒᆞ논ᄯᅡ해다시오니真實로내사ᄂᆞᆫ지비ᄃᆞ외옛도다

山雨樽仍在沙沉榻未移 言前日所設之樽榻ㅣ今猶在也ㅣ라 ○ 뫼비예 酒樽ㅣ 仍ᄒᆞ야 잇고 몰애 무犬 텨시니 坐榻ㅣ 옮기디 아니ᄒᆞ옛도다

迎曾宿客鵶護落巢兒 가히ᄂᆞᆫ 일즉 와 잔 소ᄂᆞᆯ 맛고 가마괴ᄂᆞᆫ 기세 디ᄂᆞᆫ 삿기ᄅᆞᆯ 救護ᄒᆞᄂᆞ다

雲薄翠微寺天清皇子陂 구루믄 翠微寺애 열웻고 하ᄂᆞᆯᄒᆞᆫ 皇子陂예 몰갯도다

向來幽興極步屧過東籬 요ᄉᆞ이예 幽深ᄒᆞᆫ 興ㅣ ᄀᆞ장 ᄒᆞᆯ시 신신고 거러 東녁 울흘 디나오라

落日平臺上春風啜茗時 디ᄂᆞᆫ 힛 平臺우희 봆ᄇᆞᄅᆞᆷ 매 차 마시ᄂᆞᆫ ᄢᅵ로라

石欄斜點筆桐葉坐題詩 돌欄干여셔비스기

부들무쳐머귓니페안자셔그를스노라翡翠鳴衣桁蜻蜓立釣絲桁은去聲이니橫木이라○翡翠는옷거론남기셔울오존자리는고기낫는주레셧도다

自今幽興熟來往亦無期이제로브터幽深ᄒᆞᆫ興ㅣ니그니오며가ᄆᆞᆯᄯᅩ期約업시ᄒᆞᆯ디로다

頻恠朝參懶應耽野趣長此는言我ㅣ常恠將軍의懶於朝參ᄒᆞ다니乃耽野趣故也ㅣ랏다○朝參게을이홈을ᄌᆞ모恠異히너기다니미혯興趣기루믈당당히耽ᄒᆞ다다

雨拋金鎖甲苔臥綠沉槍綠沉은以綠色으로沉沫其柄也ㅣ니此는皆言不好武也ㅣ니라○비예는쇠로열군甲이ᄇᆞ렷

고 이 ᄉᆡᆫ 프ᄅᆞᆫ 칠ᄒᆞᆫ 捨ㅣ 누엣도다 手自移蒲柳家纔足稻粱

손ᄋᆞ로 제 蒲柳ᄅᆞᆯ 옮겨 심거 도소니 지븐 ᄋᆡ야라 稻粱ㅣ 足ᄒᆞᆯ만ᄒᆞ도다 看君用

幽意白日到羲皇 而須溪云白日은 不待夜夢見ㅣ니라 ○ 그ᄃᆡ의 幽

深ᄒᆞᆫ ᄠᅳ들 보니 나지도 羲皇ᄭᅴ 가리로다

到此應嘗宿相留可判年 判年요 半年也ㅣ라 ○ 예와 당당이

일즉 자니 서로 머므로미 어루 ᄫᅳ희나ᄒᆞ도다 蹉跎暮容色悵望好

林泉 蹉跎는 不遂意也ㅣ라 甫ㅣ 言我ㅣ 以蹉跎衰老之容으로 悵望此林泉之好

也ㅣ라 ○ 蹉跎ᄒᆞᆫ 늘근 양ᄌᆞ로 됴ᄒᆞᆫ 林泉을 슬허 ᄇᆞ라노라 何日霑微祿

歸山買薄田斯遊恐不遂把酒意茫然어느나래져고맛祿을저져뫼해가사오나온바톨사려뇨이노로믈일우디몯홀가저후니수를자바셔ᄠᅳ디茫然ᄒᆞ예라

、園

仲夏流多水清晨向小園仲夏애한므리ᄒᆞᄅᆞᄂᆞ니물군새배小園을向ᄒᆞ야오라碧溪搖艇闊朱果爛枝煩프른시내ᄂᆞᆫᄇᆡ를이어오매어위니블근果實은가지예므르니거하도다始為江山靜終防市井喧이園림ᄀᆞ로ᄆᆡ為江山之靜ᄒᆞ、니ᄆᆞᄎᆞ맨市井之喧ㅣ亦無也

ㅣ라 ○ 치여뮌 江山이 寂靜호ᄆᆞᆯ 爲ᄒᆞ니 畦
ᄆᆞᆫ ᄎᆞ맨 市井의 돌에 요ᄆᆞᆯ 마ᄀᆞ리로다

蔬繞茅屋自足媚盤飧 이러엣 菜蔬ㅣ 새지븨 둘엣ᄂᆞ니 ᄉᆞᄉᆞ로
足히 盤飧을 됴히 ᄒᆞ리로다

、小園

由來巫峽水本自楚人家 비로브터 오매 巫峽엣 므리오 本來 로 제 楚人 사ᄅᆞᆷᄆᆡ 지비로다

客病留因藥春深買爲花 客ᄋᆞᆫ 甫ㅣ라 ○ 나그내 病ᄒᆞ야 머므러 슈믄 藥을 因ᄒᆞ얘오 보미 깁거늘 사믄 고ᄌᆞᆯ 爲ᄒᆞ얘니라

秋庭風落果灢岸雨頹沙 ᄀᆞᅀᆞᆳ 뜰헤는 ᄇᆞᄅᆞ미 果實을 디

오瀼水ㅅ두듥겐비몰애ᄅᆞᆯ믈허놋다 問俗營寒事將詩待物華 言見物華而作詩也ㅣ라○風俗올무러치위옛이ᄅᆞᆯ일우고그ᄅᆞᆯ가져셔萬物ㅅ비ᄎᆞᆯ待接ᄒᆞ노라

寒雨朝行視園樹

柴門雜樹向千株丹橘黃甘此地無 柴門엣雜남기즈믄나치ᄃᆞ외야가ᄂᆞ니블근橘와누른甘子ᄂᆞᆫ이ᄯᅡ해업도다 江上今朝寒雨歇籬中秀色畫屏紆 ᄀᆞᄅᆞᆷ우희오ᄂᆞᆳ아ᄎᆞ매치운비歇ᄒᆞ니욼가온ᄃᆡ빗됴ᄒᆞᆫ비ᄎᆞᆫ그린屛風에버므렛ᄂᆞᆫ듯ᄒᆞ도다 桃蹊李徑年雖

故梔子紅椒豔色殊 복셩화 션 길과 외얏 션 길히 ᄒᆡ 비록 오라나 梔子와 紅椒와ᄂᆞᆫ 고ᄋᆞᆫ 비치 殊異ᄒᆞ도다

鑠石藤稍元自落到天松骨見來枯 돌ᄒᆡ 열겟ᄂᆞᆫ 藤ㅅ 가치ᄂᆞᆫ 본ᄃᆡ 제 드렛고 하ᄂᆞᆯ해 니르렛ᄂᆞᆫ 솘 남ᄀᆞᆫ 보매 이우렛도다

林香出實垂將盡葉蔕辭枝不重蘇 수프레 곳다온 남ᄀᆞᆫ 여르믈 내여 향ᄀᆞᆺ 엽수메 다ᄃᆞ랏고 닙과 고고리ᄂᆞᆫ 가지ᄅᆞᆯ 여희여 다 지쉬니 몯ᄒᆞ놋다

愛日恩光蒙借貸淸霜殺氣得憂虞 愛日ᄋᆞᆫ 冬日ㅣ니 言蒙冬日之暖故로 不憂淸霜殺氣之凜冽也ㅣ니라

ㅇᄉᆞ랑ᄒᆞ온 ᄒᆡ의 恩惠ᄅᆞ왼 비ᄎᆞᆯ 빌요믈 니부니 ᄆᆞᆯᄀᆞᆫ 서리의 殺氣ᄅᆞᆯ 시러곰 시름ᄒᆞ리

아

衰顔動覓藜床坐緩步仍須竹杖扶늘근ᄂᆞᄎᆡ뮌다마다도드랏平床을어더앉고날회여거로매지즈로대막대를어더잡노라散騎未知雲閣處啼猿僻在楚山隅此ᄂᆞᆫ甫ㅣ言未得歸尚書工部員外之署而今在楚山也ㅣ니라○散騎省ㅅ구룸끤집잇ᄂᆞᆫᄃᆡᄅᆞᆯ아디몯ᄒᆞ리로소니납우ᄂᆞᆫ데해幽僻히楚山ㅅ모햇잇노라

將別巫峽ᄒᆞᆯ시贈南卿兄을瀼西果園四十畝ᄒᆞ노라

苔竹素所好萍蓬無定居잇무든대ᄂᆞᆫ본ᄃᆡ로즐기논거시언

마ᄂᆞᆫ밀왐까다봇ᄀᆞᆯᄒᆞ야 遠遊長兒子幾地
安定ᄒᆞ야아로미엽소라
別林廬ㅣ 長兒子ᄂᆞᆫ言遠遊ㅣ已久故로兒子ㅣ長成也ㅣ라 ○ 머리노뇨뎨아희
돌히자라ᄂᆞ니몃ᄯᅡ해수
픐서리옛지블여희야뇨 雜蘂紅相對他時
錦不如 雜고지블서르對ᄒᆞ야옛ᄂᆞ니다ᄅᆞᆫᄢᅢᄂᆞᆫ錦도곤디몯ᄒᆞ리라 具舟
將出峽巡園念携鋤 ᄇᆡᄅᆞᆯᄀᆞ쵸ᄒᆞ야쟝ᄎᆞᆺ峽으로나가노니園圃ᄅᆞᆯ
巡行ᄒᆞ야호미가져셔미런이ᄅᆞᆯᄉᆞ랑ᄒᆞ노라 正月喧鶯未玆辰放
鷁初 正月에곳고리우ᄂᆞᆫ그티이 뻬ᄇᆡᄅᆞᆯ노ᄒᆞᆯ처어미니라 雪籬梅可
折風榭柳微舒 눈왯ᄂᆞᆫ올헤梅花ᄅᆞᆯ어로것그리오ᄇᆞᄅᆞᆷ부ᄂᆞᆫ亭榭에버

드리 잠간 펴뎃도다 托贈卿家有 因歌野興踈 그뒷지비브더 주어두게ᄒᆞ고 믜혓興의踈放ᄒᆞ몰 기즈로 브르노라

殘生逗江漢 何處狎漁樵 衰殘ᄒᆞᆫ 人生애 江漢으로 가노니 어듸가 고기 자ᄇᆞ며 나모 지ᄂᆞ븐 親狎ᄒᆞ려뇨

課小豎ᄒᆞ야 鉏斫舍北果林이 枝蔓荒穢ᄒᆞ야 淨訖ᄒᆞ고 移床ᄒᆞ라 三首

病枕依茅棟 荒鉏淨果林 病엣 벼개ᄅᆞᆯ 새지비 브티니 거츤 뒬 믹야 果林을 조케ᄒᆞ라

背堂資僻遠 在野興清深 지지블 지옛

ᄂᆞᆫ 僻遠ᄒᆞᆫ ᄃᆡᄅᆞᆯ 貧賴ᄒᆞ니 미
히 이셔니 與ㅣ 몰리고 ᄀᆞᆸ도다 山雉防求敵江
猿應獨吟 鷃斫枝蔓則樹不密故로 雉未羣
遊而猿亦獨吟也ㅣ라 ○뫼햇 ᄭᅯᆼ
이졔 ᄡᅡᆨ어 두믈 닥도소니 ᄀᆞᄅᆞᇝ맷 나
뵨ᄃᆞᆼᄃᆞᆼ이 ᄒᆞ오아셔 이프리로다 洩雲高
不去隱几亦無心 가ᄃᆡ 아니ᄒᆞᄂᆞ니 几를 지
페뎻 눈 구루미 노피 셔ᄲᅡ
여셔 ᄯᅩ ᄆᆞᅀᆞ
미 업소라
衆壑生寒早長林卷霧齊 여러 묏 ᄀᆞ래 치움
나미 이르니 긴 수
프레 안개 거두
미 ᄀᆞᄌᆞᆨᄒᆞ도다 青蟲懸就日朱果落封泥 프른
벌거지ᄂᆞᆫ 도ᄅᆞ혀 ᄒᆡᆺ비치 나ᅀᅡᆺ고 블
근 果實은 ᄢᅥ러뎌 ᄒᆞᆰ기 얼ᄭᅵᆺ도다 薄俗防人

面全身學馬蹄 上句ᄂᆞᆫ用人面數心之義ᄒᆞ다莊子애馬蹄ㅣ可以踐霜雪ᄒᆞᄂᆞ니此ㅣ馬之真性也ㅣ라ᄒᆞ니此ᄂᆞᆫ言全生ᄋᆞᆯ順其真性也ㅣ라○자오나ᄅᆞᆫ風俗ᄋᆞᆯ사ᄅᆞᆷ이ᄂᆞᄎᆞᆯ막ᄌᆞᄅᆞ고몸ᄋᆞᆯ에호ᄆᆞᆫᄆᆞᆯ바ᄅᆞᆯ비호노라 吟詩坐回首

隨意葛巾低 그ᅳᆯ이프며간자셔머리ᄅᆞᆯ도ᄅᆞ혀ᄇᆞ라고ᄠᅳ들조차葛巾ᄋᆞᆯᄂᆞᄌᆞ기ᄒᆞ노라

籬弱門何向沙虛岸只摧 올히여리니門ᄋᆞᆯ어드러向ᄒᆞ리오몰애섭거우니두들기오직믈어디놋다

日斜魚更食客散鳥還來 ᄒᆡ기울어늘고기ᄯᅩ나먹고소니흗거늘새도로오놋다

寒水光難定

秋山響易哀 츤므른 비치 一定호미 어렵고 ᄀᆞᅀᆞᆳ 뫼ᄒᆞᆫ 소리 슬푸미 쉽도다

天涯稍曛黑倚杖更徘徊 하ᄂᆞᆳᄀᆞ이 져기 어듬거늘 막대 지여 다시 미모토라

果實 古詩一首 律詩十一首

園人送瓜

江間雖炎瘴瓜熟亦不早 ᄀᆞᄅᆞᇝᄉᆞ이 비록 더우나 외 니구믄 또 이르디 아니ᄒᆞ도다

栢公鎭夔國滯務茲一掃 栢公이 夔國을 鎭安ᄒᆞ지니 留滯ᄒᆞᆫ 이를 이 ᄒᆞᆫ번 ᄡᅳ러ᄇᆞ리도다

食新先戰士共少

及溪老溪老ᄂᆞᆫ南ㅣ라言食新瓜而先給戰士ᄒᆞ고分少而又及於南也ㅣ라○새것머구매戰士ᄅᆞᆯ몬져ᄒᆞ고져근것다몯ᄒᆞᆫ믈시내ᄒᆡ늘그니게밋게ᄒᆞ도다傾筐蒲鴿靑滿眼顏色好筐은竹器오蒲鴿은瓜名ㅣ라○筐을기우리니蒲鴿ㅣ퍼러ᄒᆞ니누네ᄀᆞᄃᆞ기비취죠토다竹竿接嵌竇引注來鳥道謂接筒引水也ㅣ라鳥道ᄂᆞᆫ言山高也ㅣ라○댓나ᄎᆞᆯ바횟굼긔다혀므를혀흘려새ᄃᆞᆫ니ᄂᆞᆫ길ᄒᆞ로뎌오놋다浮沉亂水玉愛惜如芝草水玉은水精ㅣ라言以瓜로浸水ᄒᆞ니或浮或沉ㅣ如水玉也ㅣ라◎ᄠᅳ락ᄃᆞᄆᆞ락ᄒᆞ미水玉ㅣ어즈러오니ᄉᆞ랑ᄒᆞ야앗교ᄆᆞᆯ芝草ᄀᆞ티ᄒᆞ노라落刃嚼氷霜

開懷慰枯槁 갌롬해디여氷霜곧ᄒᆞ니믈깁고ᄆᆞᄋᆞ믈여러枯槁ᄒᆞᆫ모ᄆᆞᆯ慰勞ᄒᆞ노라

許以秋蒂除仍看小童抱 許ᄒᆞ되ᄀᆞᄋᆞᆯ히너출아ᄋᆞᆯ제小童이아나가물지ᄌᆞ로보라ᄒᆞ도다

東陵跡蕪絶楚漢休征

討園人非故侯種此何草草 草草ᄂᆞᆫ辛苦ᄒᆞᆫ라言楚漢人사홈ᄒᆞᆯ제東陵侯邵平ㅣ隱居種瓜ᄒᆞ야ᄂᆡ와이제園人의種瓜ᄒᆞ미乃辛苦也ㅣ라○東陵의자최ᄀᆞᆺ고楚漢의征討ᄒᆞ미업스니園人은녯侯ㅣ아니니이ᄅᆞᆯ심고미ᄌᆞ모草草ᄒᆞ도다

詣徐卿覓果子栽

草堂少花今欲栽不問綠李與黃梅 草堂애 고지 져글ᄉᆡ 이제 시므고져 ᄒᆞ야 프른 외얏과 누른 梅花ᄅᆞᆯ ᄀᆞᆯᄒᆡ야 묻디 아니ᄒᆞ노라

石筍街中却歸去果園坊裏為求來 石筍ㅅ 긼가온ᄃᆡ로 도로 가 果園坊ㅅ 안해 爲ᄒᆞ야 어드라 오라

甘園

春日清江岸千甘二頃園 봄낤 믈ᄀᆞᆫ ᄀᆞᇫ 두들게 즈믄 甘子ㅅ 남기 두 이렁ᄆᆞᆫ ᄒᆞᆫ 위안히로다

青雲羞葉密白雪避花繁 프른 구루미 니피 칙칙호ᄆᆞᆯ 붓그리고 힌 누니 고지 하ᄆᆞᆯ 避ᄒᆞ리로다

結子隨邊

使開筒近至尊 筒은 盛甘之筒ㅣ라○여름 여러 邊方앳 使者ᄅᆞᆯ 조차 筒올 여러 님금ᄭᅴ 갓가이 ᄒᆞ놋다 後於桃李熟終得獻金門 복셩화와 외얏지 니근매 後호되 ᄆᆞᄎᆞ매 시러곰 金門에 進獻ᄒᆞ놋다

解悶五首

一辭故園十經秋每見秋瓜憶故丘 ᄒᆞᆫ번 故園을 여희요ᄆᆡ 열ᄀᆞᅀᆞᆯᄒᆞᆯ 디내요니 ᄆᆡ양 ᄀᆞᅀᆞᆳ 외ᄅᆞᆯ 보고 네 사던 ᄯᅡᄒᆞᆯ ᄉᆞ랑ᄒᆞ노라 今日南湖采薇蕨何人爲覓鄭瓜州 鄭瓜州ᄂᆞᆫ 指鄭審ᄒᆞ니 此ᄂᆞᆫ 因瓜而憶鄭瓜州也ㅣ라○오ᄂᆞᆳ날 南湖애셔 고사리ᄅᆞᆯ ᄣᅵ노니 어느 사ᄅᆞ미 날 爲ᄒᆞ

야 鄜州를 어드러뇨

先帝貴妃俱寂寞荔枝還復入長安 楊貴妃ㅣ嗜荔枝ᄒᆞ더니라 ○ 先帝와 貴妃왜 다 寂寞ᄒᆞ돠 荔枝ᄂᆞᆫ 도로혀 녀 長安ᄋᆞ로 드러오ᄂᆞᆺ다

炎方每續朱櫻獻玉座應悲白露團 玉座ᄂᆞᆫ 即御座ㅣ라 團은 露凝ᄒᆞᆫ 皃ㅣ라 玄宗ㅣ 自蜀으로 還ᄒᆞ샤 嶺南ㅣ 進荔枝ᄒᆞ야ᄂᆞᆯ 感念楊妃ᄒᆞ야 不覺悲慟ᄒᆞ시니라 ○ 더운 ᄯᅡ해셔 ᄆᆡ양 이스라ᄎᆞᆯ 니어 進獻ᄒᆞ더니 玉座애셔 당당이 힌 이스리 도려오 믈ᄋᆞᆯ ᄒᆞ시니라

憶過瀘戎摘荔枝青楓隱映石逶迤 瀘戎은 蜀中二

州ㅣ니產荔枝ᄒᆞᄂᆞ니라○瀘戎을디나가荔枝ᄠᆞ던이를ᄉᆞ랑호니프른닙남기비취엿고돌히내[illegible]니라우京華應見無顏色紅顆酸甜只自知此ᄂᆞᆫ言荔枝ㅣ色變而味不變也ㅣ라○서울셔당당이보면비치업스리니블근나치싀오ᄃᆞ로ᄆᆞᆯ오직제아ᄂᆞ니라

翠瓜碧李沉玉甃赤梨蒲萄寒露成甃ᄂᆞᆫ우믈벗ᄂᆞᆫ甃ㅣ니玉甃ᄂᆞᆫ以玉ᄋᆞ로爲井甃也ㅣ라○그른외와프른외야ᄌᆞᆫ玉ᄋᆞ로ᄡᆞᆫ귀우레ᄃᆞᆺ맷고블근비와蒲萄ᄂᆞᆫ촌이ᄉᆞ레이ᄂᆞ니라可憐先不異枝蔓此物娟娟長遠生此物ᄂᆞᆫ指荔枝ᄒᆞ니言荔枝與他菓木으로不異연마ᄂᆞᆫ

以生於遠地故로以為貴也ㅣ라ㅇ可히슬
프도다블뎌가지와녀흘왜다ᄃᆞ더아니컨
마ᄂᆞᆫ이거시고아長
常먼뎌셔발셔니라
側生野岸及江蒲不熟丹宮滿玉壺戎僰人ㅣ以献
로為蕭ㅣ라此ᄂᆞᆫ言求荔枝於遠方也ㅣ라
ㅇ미햇두듥과ᄀᆞᄅᆞᇝ蒲애ᄀᆞᅀᅵ나ᄂᆞ니블근
宮殿애셔나거나아니호ᄃᆡ
玉壺애ᄀᆞᄃᆞᆨ기ᄃᆞᆷ놋다
雲壑布衣鮐背死
勞人害馬翠眉須鮐背ᄂᆞᆫ老人ㅣ背有鮐文也ㅣ라臨武長唐羌ㅣ上
書諫荔枝ᄒᆞ니라翠眉ᄂᆞᆫ美人ㅣ니指貴妃
라ㅇ구룸낀묏고랫뵈옷니븐등어리어르
느근사ᄅᆞᆷㅣ주그니사ᄅᆞᄆᆞᆯᄀᆞᆺ비며ᄆᆞ
롤害ᄒᆞ야翠眉롤為ᄒᆞ야에더오놋다

題槐樹

小逕升堂舊不斜五株槐樹亦從遮 言升堂小逕ㅣ昔時예直入不斜ᄒᆞ더니今日엔槐樹ㅣ遮掩也ㅣ라○져고맛길로지븨올오미녜ᄂᆞᆫ기우디아니ᄒᆞ더니다ᄉᆞᆺ낫복셩남기ᄯᅩᄀᆞ리오몯므더니너기노라

高秋揔餧貧人實來歲還舒滿眼花 此ᄂᆞᆫ言올히여름머거도오ᄂᆞᆫᄒᆡ예ᄯᅩ여러당상머그리라ᄒᆞ논마리라○노ᄑᆞᆫᄀᆞᅀᆞᆯ히다가난ᄒᆞᆫ사ᄅᆞᆷᄋᆞᆯ여르믈머기리니오ᄂᆞᆫᄒᆡ엔도로누네ᄀᆞᄃᆞᆨ기뵈ᄂᆞᆫ고지프리라

簾戶每宜通乳燕兒童莫信打慈鴉 信은聽信也ㅣ라○발와이페ᄂᆞᆫ미양삿기치ᄂᆞᆫ져

비ᄉᆞᄆᆞ차ᄃᆞᆫ 뵤미 됴ᄒᆞ니 아히돌히 慈孝ᄒᆞᄂᆞ가 마괴 뉴믈 듣디 아니ᄒᆞ노라 寠婁

群盜非今日天下車書正一家 此篇ᄂᆞᆫ 늘근 梅樹 보믈 因ᄒᆞ야 有感今懷昔之作ㅣ니 言昔時옛 非如今日엣 有寠婁群盜ㅣ라 乃天下애 車同軌書同文ᄒᆞ야 正爲一家ㅣ러니라ᄂᆞᆫ ᄒᆞ올어미와 뭀 盜賊괘 오ᄂᆞᆳ날 ᄀᆞᆫ디 아니터니 天下애 술위와 글월왜 ᄀᆞ 희ᄒᆞᆫ 지비러니라

、竪子至

欅梨且綴碧梅杏半傳黃 欅ᄂᆞᆫ 梨屬ㅣ라。 欅梨ᄂᆞᆫ 죠ᄀᆞᆫ 거시니 어여ᄇᆡᆺ고 梅杏ㅣ 半만 누른비치 傳ᄒᆞ얏도다 小子幽園至輕籠

熟捺香 져근아ᄒᆡ 幽園에셔 오나가비 야온 籠애 나근 벼치 곳답도다 山風

猶滿把野露及新嘗 뫼햇 ᄇᆞᄅᆞ미 오히려 자배 ᄂᆞᆫ ᄉᆞ내 ᄀᆞ독ᄒᆞ돗ᄒᆞ니 ᄆᆡ햇 이스리 새려 머구메 밋도다

敧枕江湖客提携日月長 버개예 기우렷ᄂᆞᆫ 江湖앳 나그내 잡드런디 나ᄃᆞ리 길어다

野人送朱櫻

西蜀櫻桃也自紅野人相贈滿筠籠 西蜀앳 이스라치 ᄯᅩ 제 블그니 ᄆᆡ햇 사ᄅᆞ미 서르 주니 대 籠애 ᄀᆞ독ᄒᆞ도다

數回細寫愁

仍破萬顆勻圓訝許同 두어 ᄇᆞ위ᄅᆞᆯ ᄀᆞᄂᆞ리 브어 지즈로 헐가시

름ᄒᆞ노니一萬다치ᄀᆞᆯ오두려우憶昨賜霑
니뎌러히ᄅᆞᆫᄒᆞᆫ믈疑心ᄒᆞ노라
門下省退朝省出大明宮此ᄂᆞᆫ甫ㅣ追言拾遺時事ᄒᆞ다○ᄉᆞ
랑ᄒᆞ논뎨門下省애셔주어시든霑恩ᄒᆞ야朝會ᄅᆞᆯ믈러大明宮으로셔바다나오다라
金盤玉筯無消息此日嘗新任轉蓬金盤玉筯ᄂᆞᆫ賜
櫻桃時옛所用之器라此ᄂᆞᆫ言不復受賜ᄒᆞ라○金盤과玉筯와消息ㅣ업스니이다
래새ᄅᆞᆯ맛보고다봇올마ᄃᆞᆫ니ᄃᆞᆺ호몰므더니너기노라

蕭八明府寔處覓桃栽

奉乞桃栽一百根春前爲送浣花村복셩홧栽種一

百불휘를奉ᄒᆞᄂᆞ니 春前河陽縣裏雖無에 浣花村애爲ᄒᆞ야보내라

數濯錦江邊未滿園 潘岳ㅣ爲河陽令ᄒᆞ야種桃ᄒᆞ니以比蒼明府ᄒᆞ다 濯錦江온甫의所居處ㅣ라○河陽縣ᄌᆞ안하아비록數업시이시나濯錦江ㅅᄀᆞ앤위안히ᄎᆞ디몯ᄒᆞ예라

池沼 律詩九首

、秋日寄題鄭監湖上亭三首

碧草違春意沅湘萬里秋라 沅湘온二水名ㅣ라○ᄑᆞ른ᄑᆞ리봆ᄠᅳ디어긔르ᄎᆞ니沅湘ㅅ萬里옛ᄀᆞ올히로다 池要山簡馬月靜庾

公樓 要ᄂᆞᆫ邀로同ᄒᆞ니라山簡은鎭襄陽ᄒᆞ야遂習氏池ᄒᆞ고庾亮은鎭武昌ᄒᆞ야秋月의登南樓ᄒᆞ니以比鄭監ᄒᆞ니라○모ᄉᆞᆫ山簡의모ᄅᆞᆯ맛고ᄃᆞ론庾公의樓에靜家ᄒᆞ얏도다

磨滅餘篇翰平生一釣舟 此ᄂᆞᆫ甫ㅣ言世事ㅣ磨滅而惟有詩篇釣舟而已라○磨滅호매글ᄒᆞ기옷나맷ᄂᆞ니平生애고기잡ᄂᆞᆫᄇᆡᄒᆞ나得ᄒᆞ니로다

高唐寒浪減髥鬢識昭丘 昭丘ᄂᆞᆫ鄭監所在니甫欲乘舡往訪也ㅣ라○高唐ㅅᄎᆞᆫ믌결리더ᄂᆞ니스므시昭丘ᄅᆞᆯ아노라

新作湖邊宅還聞賓客過 새려ᄀᆞᄅᆞᇝᄀᆞ의지블지오너도로ᄂᆞᆫᄃᆞᆯ히디나가ᄂᆞ다듣노라

自須開竹徑誰道避雲蘿 言開竹徑

而待賓客ᄒᆞ니 非隱避雲蘿者ㅣ니라 ○ ᄉᆞ석로모로 대멋수페 길흘 여러내ᄂᆞ니 뉘닐오ᄃᆡ 雲蘿애 隱避ᄒᆞ갓ᄀᆞᆮᄒᆞ리고

官亭潘生拙 才名賈誼多 潘岳ㅣ 仕宦不達ᄒᆞ니라 此ᄂᆞᆫ 皆喩鄭監ᄒᆞ다 ○ 버슳 次第ᄂᆞᆫ 潘生ㅣ 踈拙ᄒᆞ고 저조ᄒᆞᆫ 일후믄 賈誼 하도다

捨舟應卜地 鄰接意如何 甫欲往湖亭而卜居也ㅣ라 ○ ᄇᆡᄅᆞᆯ ᄇᆞ리고 당다ᇰ이 사ᄅᆞᆯ ᄯᅡᄒᆞᆯ 占卜호리니 이우제 브틀 ᄠᅳ디 엇더ᄒᆞ니오

暫往蓬萊閣 終爲江海人 鄭審ㅣ 昔爲秘書監而今在江海也ㅣ라 ○ 蓬萊閣애 잠간 머므로ᄆᆞᆫ ᄆᆞᄎᆞᆷ매 江海옛 사ᄅᆞ미 ᄃᆞ외옛도다 揮金應物

理掩玉豈吾身 揮金은謂散金ᄒᆞ야買酒食也ㅣ라掩玉은即佩玉之意라○黃金을揮散ᄒᆞ고이당당ᄒᆞ나物理그ᄅᆞᄒᆞ니玉ᄋᆞᆯᄀᆞᆺ구믄엇뎨ᄂᆡ모매ᄒᆞᆯ이리리오

羲煮秋蓴弱盃迎露菊新 羲은ᄀᆞᅀᆞᆳ蓴ㅣ보ᄃᆞ라오닐글히고잔ᄋᆞᆫ이슬마ᄌᆞᆫ菊花ㅣ새로외닐맛놋다

賦詩分氣象佳句莫頻頻 言鄭監ㅣ分甫ᄡᅥ賦詩之氣象ᄒᆞ니甫之佳句ㅣᄌᆞ조잇ᄇᆞᆺ마리라○글지우매氣象ᄋᆞᆯ논화주니ᄯᅩᄒᆞᆫ둏句ᄂᆞᆫᄌᆞᆺ니아니ᄒᆞ니아

丶暮春陪李尚書李中丞過鄭監湖亭泛舟得過字

海內文章伯湖邊意緒多 海內옛文章애위두ᄒᆞᆫ사ᄅᆞ미구룺ᄀᆞ애ᄠᅳ디하도다

玉樽移晚興桂楫帶酣歌 玉樽을나죗興에옮기ᄂᆞ니桂楫은酣ᄒᆞ야셔브르ᄂᆞᆫ놀애ᄅᆞᆯ帶ᄒᆞ얫도다

春日繁魚鳥江天足芰荷 봄나래고기와새왜하고ᄀᆞᄅᆞᇝ하ᄂᆞᆯ해말왐과蓮괘足ᄒᆞ도다

鄭莊賓客地衰白遠來過 鄭當時의字ㅣ莊ㅣ니置驛馬長安諸郊ᄒᆞ야請謝賓客ᄒᆞ더니比鄭監ᄒᆞ니○鄭莊ᄋᆡ손對接ᄒᆞᄂᆞᆫᄯᅡ해늘거센머리예머러오라

、晚秋陪嚴鄭公摩訶池泛舟得溪字

湍駛風醒酒船行霧起隄믈셜리ᄒᆞᄅᆞᄂᆞᆫ뒤ᄇᆞᄅᆞ미수를ᄭᆡ오
ᄂᆞ니ᄇᆡ녀가매안개두들게셔니놋다高城秋自落雜樹晚相
迷ᄂᆞᆫ高城에ᄀᆞ옰ᅀᅵ시절로디ᄂᆞ니雜남ᄀᆞᆫ나조ᄒᆡ서르迷失ᄒᆞ리로다坐觸
鴛鴦起巢傾翡翠低안자셔鴛鴦ᄋᆞᆯ다딜어ᄂᆞᆯ에ᄒᆞ니기시기우니
翡翠ㅣᄂᆞᄌᆞᆨᄒᆞ도다莫須驚白鷺爲伴宿青溪모로매白鷺를
놀래디마라번ᄒᆞ야青溪예잘지로다

、陪王漢州ᄒᆞ야留杜綿州ᄒᆞ야泛房公西
湖호라房琯ㅣ爲漢州刺史時예所鑿ㅣ라

舊相恩追後春池賞不稀 房琯ㅣ自漢州刺史로徵爲刑部尚書ᄒᆞ니라○녯宰相ㅣ恩命으로블려간後에봄모새賞玩호미드므디아니ᄒᆞ도다

闕庭分未到舟楫有光輝 言杜縣州ㅣ時未赴闕而來遊ᄒᆞ니舟楫ㅣ有光輝也ㅣ라分은去聲ㅣ라○大闕ㅅ뜰헤分ㅣ니르디몯ᄒᆞ니비옛빗나미잇도다

豉化蓴絲熟刀鳴膾縷飛 豉蓴을同煮ᄒᆞ면됴ᄒᆞ니라○젼구기노ᄀᆞ니蓴ㅅ시리닉고갈히우니膾ㅣ실ᄀᆞᆺ치ᄂᆞ놋다

使君雙皂蓋灘淺正相依 使君의두거믄蓋ㅣ여흘여튼뒤正히서르브텃도다

答楊梓州

悶到房公池水頭坐逢楊子鎮東州 없[?]가와 房公의
못우희갓다가안자셔楊子 의東州에鎭ᄒᆞ요ᄆᆞᆯ맛보라 却向青溪不相
見回艦應載阿戎遊 此ㅣ別有一時亭ㅣ로 다ᄋᆞ[?] 또로 青溪를向ᄒᆞ
야가셔르보디몯ᄒᆞ니비돌아올저 귀당당이阿戎을시러놀리로다

、與任城許主簿遊南池

秋水通溝洫城隅集小船 ᄀᆞᅀᆞᆳ[?]므리溝洫에 ᄉᆞ모찻ᄂᆞ니城人
모해ᄒᆞ요ᄆᆞᆫ비 모ᄃᆡᆺ도다 晚涼看洗馬森木亂鳴蟬 나져 서늘
호매몰깃교몰보니섭픤남기 ᄂᆞᆫ우ᄂᆞᆫ미야미어즈럽도다 菱熟經時雨

蒲荒八月天 말와 믈 時節을 디내오 눈비예 니겟고 졀피ᄂᆞᆫ 八月ㅅ 하ᄂᆞᆯ해 거츠렛도다

晨朝降白露 遙憶舊青氈 王獻之ㅣ 盜賊더브러 닐오ᄃᆡ 青氈온 我家舊物ㅣ니 두고 가라 ᄒᆞ니라 此ᄂᆞᆫ 言時已近寒ᄒᆞᆯᄉᆡ 欲得青氈而臥ㅣ라○새배 ᄒᆡᆫ 이스리 ᄂᆞ리ᄂᆞ니 녯 프른 시우글 아ᄋᆞ라히 ᄉᆞ랑ᄒᆞ노라

、溪上

峽內淹留客 溪邊四五家 峽간해 와 머므는 나그내여 시냇ᄀᆞ애 네닷 지비로다

古苔生迮地 秋竹隱踈花 迮은 側狹ᄒᆞ니 迫也ㅣ라○녯 苔ᄂᆞᆫ 조ᄇᆞᆫ ᄯᅡ해 낫고 ᄀᆞᅀᆞᆳ 대옌 드믄 고지 그윽ᄒᆞ엿도다

塞俗

人無井山田飯有沙 邊塞옛風俗은사ᄅᆞ미 우므리업스니묏바틴 바배ᄆᆞᆯ애 잇도다

西江使船至時復問京華 西ㅅ녁ᄀᆞᄅᆞ매 使臣의ᄇᆡ와시니時로 ᄯᅩ셔욼이ᄅᆞᆯ묻노라

舟楫律詩十二首

、放船

送客蒼溪縣山寒雨不開 蒼溪縣에셔소ᄂᆞᆯ 보내요니뫼히ᄎᆞ 고비번히여디 아니ᄒᆞᄂᆞ다

直愁騎馬滑故作泛舟迴 곧ᄆᆞᆯ 토매믯그러우믈시름ᄒᆞ야부 러ᄇᆡᄠᅴ워도라오ᄆᆞᆯ지오라

青惜峯巒過 가

黃知橘柚來 프른거스란 峯巒이 다 나가 몰앗기고 누른거스란 橘柚ㅣ오ᄂᆞᆫ딜 아노라

江流大自在 坐隱興悠哉 ᄀᆞᄅᆞ미 흘루미 키 自在ᄒᆞ니 안자 쇼미 편안ᄒᆞ니 興ㅣ 기리 나ᄂᆞ다

、數陪李梓州泛江有女樂在諸舫戲爲

豔曲二首

上客回空騎 佳人滿近船 公謂送馬ᄒᆞ야載來船也ㅣ라 ○노ᄑᆞᆫ 소ᄂᆡ 뵌 ᄆᆞᄅᆞᆯ 도라 보내니 고온 사ᄅᆞ미 갓가온 ᄇᆡ예 ᄀᆞᄃᆞᆨᄒᆞ얏도다

江清歌扇底 野曠舞衣前 ᄀᆞᄅᆞᄆᆞᆫ 놀애 브르ᄂᆞᆫ 부체 미틔 ᄆᆞᆰ고 ᄃᆞᄅᆞᄒᆞᆫ 춤 츠ᄂᆞᆫ 옷

알퀴훤ᄒᆞ도다

玉柚凌風並金壺隱浪偏 玉ᄋᆞ로 ᄆᆡᆫ 민ᄉᆞ매ᄂᆞᆫ ᄇᆞᄅᆞ매 凌犯ᄒᆞ야 ᄀᆞᆯ왓고 金壺ᄂᆞᆫ 믌겨레 그ᅀᅳᆨᄒᆞ야 기우렛도다

竟將明媚色偷眼豔陽天 偷眼ᄋᆞᆫ ᄂᆞᆷ 아니 볼제 ᄀᆞ마니 볼시라 ○ ᄃᆞ토와 고온 비ᄎᆞᆯ 가져셔 豔陽天에 셔일버어보놋다

白日移歌袖青霄近笛床 블근 ᄒᆡᄂᆞᆫ 놀애 브르ᄂᆞᆫ ᄉᆞ매예 옮고 프른 하ᄂᆞᆯᄒᆞᆫ 뎌 부ᄂᆞᆫ 주床애 갓갑도다

翠眉縈度曲雲鬢儼分行 프른 눈셥은 브르ᄂᆞᆫ 놀앳소리 버므렛고 구룸 ᄀᆞᄐᆞᆫ 귀미ᄐᆞᆫ 儼然히 行列을 ᄂᆞᆫ화도다

立馬千山暮回舟一水香 즈믄 뫼ᄒᆡ 나조ᄒᆡ ᄆᆞᄅᆞᆯ 셰옛고 ᄒᆞᆫ

므기 곳다온ᄃᆡ 비롤 도ᄅᆞ혀다 使君自有婦 莫學野鴛鴦 謂戒勿愛佳人也ㅣ라 ○ 使君ㅣ 스싀로 겨지비 잇ᄂᆞ니 뫼햇 鴛鴦새 이를 비호디 말라

丶陪諸貴公子丈八溝攜妓納涼晩際遇

雨二首

落日放船好 輕風生浪遲 디ᄂᆞᆫ ᄒᆡ예 ᄇᆡ롤 노호미 됴ᄒᆞ니 가ᄇᆡ야온 ᄇᆞᄅᆞ매 믌결 나미 더듸도다

竹深留客處 荷淨納涼時 대ᄂᆞᆫ 손 머믈웟ᄂᆞᆫ ᄯᅡ해 깁고 蓮은 서늘호ᄆᆞᆯ 드리ᄂᆞᆫ ᄢᅴ 조햇도다

公子調氷水 佳人雪藕絲 公子ᄂᆞᆫ 어르므를 調和ᄒᆞ고 고온 사ᄅᆞᄆᆞᆫ 蓮ㅅ 시를 싯놋

다

片雲頭上黑應是雨催詩 片雲ㅣ 머리우희 거므니 당당이 비 글지우믈 뵈아놋다

雨來霑席上風急打舡頭 비와 돗우흘 저지나 ᄇᆞᄅᆞ이 ᄲᆞᆯ라 ᄇᆡᆺ머리ᄅᆞᆯ 티놋다

越女紅裙濕燕姬翠黛愁 黛ᄂᆞᆫ 以黛로 畫眉也ㅣ라 ○越ㅅ 겨지븨 블근 ᄀᆞ외 젓고 燕ㅅ 겨지븨 프른 눈섭비 시름ᄃᆞ외도다

纜侵堤柳繫幔卷浪花浮 ᄇᆡᆺᄌᆞᄅᆞᆯ 두들긧 버드를 侵犯ᄒᆞ야 ᄆᆡ요니 帳ᄋᆞᆯ 거드니 믌겨리 ᄠᅳ도다

歸路飜蕭颯陂塘五月秋 도라가ᄂᆞᆫ 길히 도ᄅᆞ혀 서늘ᄒᆞ니 波塘ㅣ 五月에 ᄀᆞᄋᆞᆯ ᄀᆞᆮ도다

泛江

方舟不用檝 極目總無波ㅣ라 方舟ᄂᆞᆫ 並兩船也ㅣ라 ○ 方舟ᄒᆞ매 ᄇᆡᄂᆞᆯ ᄡᅳ디 아니ᄒᆞ노소니 ᄀᆞ장 눈ᄢᅥ 보니 다 믌겨리 업도다

長日容盃酒 深江淨綺羅 긴 나ᄅᆞᆯ 술 머구믈 容許ᄒᆞᄂᆞ니 기픈 ᄀᆞᄅᆞᄆᆞᆫ 기비 조ᄒᆞᆫ ᄃᆞᆺᄒᆞ도다

ᄒᆞ 亂離還奏樂 飄泊且聽歌 亂離ᄒᆞᆫ 제 도로 혀 音樂ᄋᆞᆯ ᄒᆞᄂᆞ니 飄泊애셔 놀애ᄅᆞᆯ 드ᄅᆞ노라

故國流清渭 如今花正多 此ᄂᆞᆫ 甫ㅣ 思故鄕之景物ㅣ라 ○ 故國에 ᄆᆞᆯᄀᆞᆫ 渭水ㅣ 흐르ᄂᆞ니 이제 고지 正히 하거니라

陪王使君晦日泛江就黃家亭子二首

山豁何時斷江平不肯流 뫼히 헐ᄒᆞ니 어느 제 그츠니오 ᄀᆞᄅᆞ미 平ᄒᆞ니 즐겨 흐르디 아니ᄒᆞᄂᆞ다 稍知花改岸始驗鳥隨舟 비타가며 보ᄂᆞᆫ 이ᄅᆞᆯ 니ᄅᆞ니라 ○ 저기 고지 두들게 改變ᄒᆞᄂᆞᆫ 돌 알며 비르서 새 ᄇᆡᄅᆞᆯ 좃ᄂᆞᆫ 돌 아로라 結束多紅粉歡娛恨白頭 ᄆᆡ무은 사ᄅᆞ미 紅粉이 하니 歡娛호매 센 머리ᄅᆞᆯ 슬로다 非君愛人客晦日更添愁 君ㅣ 正月晦日로 為令節ᄒᆞ니라 ○ 그ᄃᆡ옷 나그내ᄅᆞᆯ ᄉᆞ랑티 아니ᄒᆞ더든 그 몸 나래 ᄯᅩ 시르믈 더으리랏다 有徑金沙軟無人碧草芳 金沙ᄂᆞᆫ 沙色ㅣ 如金ㅣ라 ○ 길 잇ᄂᆞᆫ

딘金ᄀᆞᄐᆞᆫ믈애보ᄃᆞ라오나사
롬업슨뒤프른프리곳답도다 野畦連蛺蝶

江檻俯鴛鴦 미햇받이러믄나비ᄂᆞᆫᄃᆡ니
엣거ᄅᆞᆯᄀᆞᄅᆞ맷軒檻우鴛鴦올

俯臨ᄒᆞ
엿도다 日晚烟花亂風生錦繡香 힛나조ᄒᆡ
ᄂᆡ셴고ᄌᆡ

어ᄌᆞ러우니ᄇᆞᄅᆞ미나니
錦繡ㅣ곳다온ᄃᆞᆺᄒᆞ도다 不須吹急管衰老

易悲傷 구틔여ᄲᆞᄅᆞᆫ뎌피리ᄅᆞᆯ부디
마롤디니늘거쉬이슬로라

進艇

南京久客耕南畝北望傷神卧北窓 南京人
오란나

그내南녁이러믈가노니北녁글ᄇᆞ라
精神을슬허셔北녁窓애누엇노라 畫引

老妻乘小艇晴看稚子浴淸江 나지늘근겨지블혀됴고 맛비ᄅᆞᆯᄐᆞ고갠나래져믄아ᄃᆞ리 믈곤ᄀᆞᄅᆞ매浴호믈보노라 俱飛蛺蝶

元相逐並帶芙蓉本自雙 ᄒᆞ[illegible]ᄂᆞ는나비는 본ᄃᆡ도서르좃고 고고리ᄀᆞᆯ온芙蓉은 本來재ᄒᆞᆫ雙ㅣ로다 茗飲蔗漿携所有瓷甖

無謝玉爲缸工 차와蔗漿을잇ᄂᆞᆫ양ᄌᆞ로가죠 니구운그르시玉으로ᄆᆡᆼᄀᆞ론 缸애셔디디 아니토다

城西陂泛舟

靑蛾皓齒在樓船橫笛短簫悲遠天 蛾ᄂᆞᆫ蠶蛾ㅣ니

佳人之眉似之니라○프른눈섭과힌니왜
㜂䑸에잇ᄂᆞ니빗근뎌와뎌른피리면하ᄂᆞᆯ
해ᄉᆞᆷ피
부놋다 春風自信牙檣動遲日徐看錦纜牽
牙檣은檣端如牙也ㅣ라○봆ᄇᆞᄅᆞ매나빗
대뒤유믈믿노니긴ᄒᆡ예ᄂᆞᆯ호야셔錦纜갓
거가ᄆᆞᆯ
보노라 魚吹細浪搖歌扇燕蹴飛花落舞筵
歌扇은所以掩口遮羞也ㅣ라○고기는ᄀᆞ
ᄂᆞᆫ믌겨를부러놀애브르는부체를이어고
져비ᄂᆞᆫᄂᆞᄂᆞᆫ고ᄌᆞᆯ박차
ᄎᆞᆷ초ᄂᆞᆫ돗긔디놋다 不有小舟能盪槳百
壺那送酒如泉 此ᄂᆞᆫ言小舟盪槳ᄒᆞ야載酒
而來也ㅣ라○죠고맛ᄒᆞᆫ비
를能히비출이어디아니ᄒᆞ면百壺
에수리섬곰ᄒᆞ니를엇뎨보내리오

覆舟二首

巫峽盤渦曉黔陽貢物秋 巫峽ㅅ 믌뉘누릿 새배 黔陽ᄀ 온 貢物 시러오ᄂᆞᆫ ᄀᆞ올히로라

丹砂同隕石翠羽共沉舟 春秋에 隕石于宋이라 ᄒᆞ다 ○ 丹砂ᄂᆞᆫ 디ᄂᆞᆫ 돌과 ᄀᆞᆮ고 프른 ᄃᆞ촌ᄃᆞ 므 비와 ᄂᆞ 묻ᄒᆞ도다

羇使空斜影龍居閟積流 羇使ᄂᆞᆫ 押䑠使者ㅣ라 言覆舟之物ㅣ 爲龍宮所聚라 ○ 나그내 使者ᄂᆞᆫ 빗근 그르메 매 뷔엿도소니 龍 사ᄂᆞᆫ 된 사햇ᄂᆞᆫ 므리 깁도다

篙工幸不溺俄頃逐輕鷗 사공이 幸혀 ᄃᆞᆷ디 아니ᄒᆞ야 아니 한 더데 가비야온 ᄀᆞᆯ며기를 조차나도다

竹宮時望拜桂舘或求仙 漢志예祀甘泉ᄒᆞ니夜有神光ㅣ어놀天子ㅣ自竹宮而望拜ᄒᆞ시니라桂舘은求仙之處ㅣ라○竹宮에셔時로ᄇᆞ라절ᄒᆞ시며桂舘에셔시혹神仙을求ᄒᆞ시놋다

姹女凌波日神光照夜年 姹女ᄂᆞᆫ水銀ㅣ니錄冊之藥ㅣ라此ᄂᆞᆫ님그미보야ᄒᆞ로求仙ᄒᆞ실거긔仙藥지을姹女를시러오다가ᄇᆡ배ᄃᆞ니ᄅᆞ논마리라○姹女의믌거레凌犯ᄒᆞᆫ나리여神光ㅣ바ᄆᆡ비취엿ᄂᆞᆫ히로다

徒聞斬蛟鈎無復爨犀船 荀人佽飛ㅣ拔鈎斬蛟ᄒᆞ고溫嶠ㅣ爨犀ᄒᆞ야照水精ᄒᆞ니라어ᄂᆞᆫ비ᄇᆡ요미蛟龍의所爲어ᄂᆞᆯ버힐칼도업스며비취여블犀角도업세라니를시라○ᄒᆞᆫ갓蛟버히던ᄀᆞᆯᄒᆞᆯ드를선니로

소니 住犀角브리 使者隨秋色迢迢獨上天
뎐비도 엽도다
與는 言船ㅣ 已覆이어늘 空隨秋色而歸朝
也ㅣ라 ○ 使者 ᄂᆞᆫ ᄀᆞᅀᆞᆳ비출조차 멀리 ᄒᆞ오
아ᄒᆞ ᄂᆞᆯ해 올
아가 놋다

橋梁 律詩三首

陪李七司馬皂ᄒᆞ야 江上애 觀造竹橋ᄒᆞ고
即日成ᄒᆞ야 往來之人ㅣ 免冬寒게 入承
ᄒᆞᆫ셔 聊題短作ᄒᆞ야 簡李公ᄒᆞ노라

伐竹為橋結構同褰裳不涉往來通 대ᄅᆞᆯ 버

믈밍ᄀᆞ로매미야지우믈모다ᄒᆞ니오ᄉᆞᆯ거
두드러믈로건나더아니ᄒᆞ야가며오미通
ᄒᆞ도다 天寒白鶴歸華表日落青龍見水中 橋前
二柱曰華表ㅣ니녜白鶴ㅣ集遼東華表柱
ᄒᆞ니라青龍은言橋影也ㅣ라○하ᄂᆞᆯ히치
늘커늘白鶴ㅣ華表애도라오노소니
ᄒᆡ디거든青龍을믈가온ᄃᆡ보리로다顧我
老添題柱客知君才是濟川功 司馬相如ㅣ題昇仙橋柱
事ᄂᆞᆫ見前註ᄒᆞ다說命에若濟巨川이어든
汝作舟楫ㅣ라ᄒᆞ다이ᄂᆞᆫ나ᄂᆞᆫ相如ㅣᄠᅳᆮ곧
ᄃᆞ론ᄒᆞ니그ᄃᆡᄂᆞᆫ傳說곧도다니ᄅᆞᆯ시라○
ᄆᆞᄂᆞᆯ도라본ᄃᆡᆫ늘거기동애ᄡᅳᄂᆞᆫ客ㅣ아라니
로니그ᄃᆡᆺ지조ᄂᆞᆫ이내홀 合歡却笑千年事
고내ᄂᆞᆫ긧던다아노라

驅石何時到海東 秦始皇ㅣ欲作石橋東海
ㅣ어ᄂᆞᆯ神人ㅣ驅石下海
ᄒᆞ니라 이ᄂᆞᆫ ᄃᆞ리 일어ᄂᆞᆯ 歡歙ᄒᆞ야셔笑點
石之事也ㅣ라 ○ 모ᄃᆞ 즐겨셔도로ᄌᆞ믄 힛
이ᄀᆞᆯ 웃ᄂᆞ니 돌ᄒᆞᆯ 모라
어느 ᄢᅴ 海東애 가니오

、觀作橋成ᄒᆞ고 月夜舟中에 有述ᄒᆞ야 還呈

李司馬ᄒᆞ노라

把燭橋成夜 廻舟客坐時 ᄃᆞ리 일운 바ᄆᆡ 燭
ㅅ브를 자밧고 손
안갠ᄂᆞᆫ、ㅣ 비롤
횟도ᄅᆞ 늣다ㅣ 天高雲去盡 江迥月來遲 하
ᄂᆞᆫ
히 노ᄑᆞ니 구름 가미 다ᄋᆞ고 ᄀᆞᄅᆞ미
아ᄋᆞ라ᄒᆞ니 ᄃᆞ리오미 터ᄃᆡ도다 衰謝多

扶病招邀屢有期 눌구메病ᄒᆞᆫ모ᄆᆞᆯ扶持호로해ᄒᆞ노니블러아조미ᄌᆞ조期約ㅣ잇도다 異方乘此興樂罷不無悲 다ᄅᆞᆫ따해와이興에토니즐교ᄆᆞᆯᄆᆞᄎᆞ니슬프미업디아니ᄒᆞ도다

李司馬橋了 ᄂᆞᆯㅣ어 承高使君 이 自成都 回 호라

向來江上手紛紛三日成功事出群 手紛紛은ᄃᆞ리밍ᄀᆞ노라ᄆᆞ다ᄇᆡᄉᆞ논양ᄌᆞ라 ○向來녜ᄀᆞᄅᆞᆷ우희손니어즈러우니사ᄋᆞ래功을일우니이리모ᄃᆞᆫ게特出ᄒᆞ도다 已傳童子騎青竹揔擬橋東

待使君郭伋ㅣ爲幷州牧이어늘兒童ㅣ騎竹馬ᄒᆞ야迎拜ᄒᆞ니此ᄂᆞᆫ比高使君

ᄒᆞ니라○ᄒᆞ마傳호ᄃᆡ아ᄒᆡ프른대ᄅᆞᆯᄐᆞ

ᄆᆡ東녀긔셔使君을기들우리라다너기ᄂᆞ

다ᄒᆞᄂᆞ다

燕飲古詩七首 律詩二十首

醉時歌甫ㅣ自註贈廣文館學士鄭虔ㅣ라

諸公袞袞登臺省廣文先生官獨冷諸公은ㅣ엄臺

省에오ᄅᆞ거늘廣文先生은벼스리ᄒᆞ오아冷ᄒᆞ도다

甲第紛紛厭粱

肉廣文先生飯不足위두ᄒᆞᆫ지븐어즈러이粱肉ᄋᆞᆯ아쳐러커ᄂᆞᆯ廣

文先生은밥도不足ᄒᆞ도다 先生有道出羲皇先生有才

過屈宋ᄒᆞ고先生의뒷ᄂᆞᆫ道理ᄂᆞᆫ羲皇人우희나고先生의ᄯᅳᆺᄂᆞᆫ퇴조ᄂᆞᆫ屈原宋玉이게넘도다

德尊一代常轗軻名垂萬古知何用 轗軻ᄂᆞᆫ失志也ㅣ라○德ㅣ一代예尊ᄒᆞ되샹녜轗軻ᄒᆞ니일후미萬古애드려간돌아노라

므스게ᄡᅳ리오 杜陵野客人更嗤被褐短窄鬢如絲

野客은甫ㅣ自謂라○杜陵人野客ᄋᆞᆯ사ᄅᆞ며ᄯᅩ웃ᄂᆞ니니블누비뎌르며좁고귀믿터리실곤호락

日糴太倉五升米時赴鄭老同襟期

나날太倉앳닷되ᄡᆞᄅᆞᆯ내야時로鄭老의게오나ᄆᆞᄋᆞ미ᄒᆞᆫ가지로다 得錢即

相覓沽酒不復疑 돈ᄇᆞᆯ 어더든 곳 서르 어더 술 사 몰 任 疑心 아니ᄒᆞ노
라 忘形到爾汝痛飮眞吾師 忘形은 無威儀 禮度ㅣ라 ○ 얼
구를 니주미 너나호매 니르ᄂᆞ니 ᄀᆞ장 술 머구미 眞實로 내 스승이로다 清夜沉
沉動春酌燈前細雨簷花落 ᄆᆞᆯᄀᆞᆫ 바미 기픈 되여 봆 술 브어
머구믈 ᄒᆞ니 블 알ᄑᆡᆺ ᄀᆞᄂᆞᆫ 비 예 집기슭 겟고지 든 놋다 但覺高歌有鬼
神焉知餓死塡溝壑 오직 노ᄑᆞᆫ 놀애예 鬼神 잇ᄂᆞᆫ ᄃᆞᆺ ᄒᆞ물 아ᄃᆡ 웨드
스므라 주려 주거 굴헝 예 몃귀올 이롤 아리오 相如逸才親滌器子
雲識字終投閣 이ᄂᆞᆫ 지죄 팔뎌 엽스니라ᄒᆞ 논 마리라 ○ 相如ㅣ 放逸ᄒᆞᆫ

지조로도親히그르슬시고子雲ㅣ奇字ᄅᆞᆯ아라도내죵애閣애셔ᄂᆞ려디니라先生早賦歸去來石田茅屋荒蒼苔陶潛이彭澤令ᄒᆞ야賦歸去來辭ᄒᆞ고棄官歸家ᄒᆞ니라○先生온일歸去來ᄅᆞᆯ지오라돌밧과ᄠᅴ지븨프른이시ᄭᅵᄌᆞ렷ᄂᆞ니라儒術於我何有哉孔丘盜跖俱塵埃儒術ㅣ내거긔므슴도ᄒᆞᆫ이리이시리오孔丘와盜跖괘다ᄒᆞᆫ가지로드틀ᄃᆞ외니라不須聞此意慘愴生前相遇且銜盃여긋이티말듯고ᄯᅩ들슬허티말오사라신제긔서로마조보매술올머굴디니라

蘇端薛復筵簡薛華醉歌

文章有神交有道端復得之名譽早 文章ㅣ神ᄒᆞ며 잇고사괴요이道ㅣ잇ᄂᆞ니端과復패어더일홈聲譽이早ᄒᆞ도다

愛客滿堂盡豪傑開筵上日思芳草 上日은正月一日이라○ᄌᆞᄂᆞᆯᄉᆞ랑ᄒᆞ야지븨ᄀᆞᄃᆞᆨ기안잿ᄂᆞ니다豪傑ㅣ로소니上日에돗골여러곳다온프를ᄉᆞ랑ᄒᆞᄂᆞᆺ다

安得健步移遠梅亂插繁花向晴昊 엇뎨健壯히거름거르리를어더먼뎃梅花를옮겨다가繁한고ᄌᆞᆯ어ᄌᆞ러이곳고갠하ᄂᆞᆯ홀向ᄒᆞ려노

千里猶殘舊氷雪白壺且試開懷抱 이ᄂᆞᆫ氷雪ㅣ이셔遠梅를몯보릴시아직수를먹노라ᄒᆞ다○千里예오히려녯어름과눈괘기터이실

지百壺를 ᄯᅩ 맛보와셔 懷抱를 여노라 垂老惡聞戰鼓悲急觴爲緩憂心擣늘구메 다ᄃᆞ라셔 시호맷 붑소리 슬푸믈 아쳐러 듣노니 ᄲᆞᆯ리 酒觴ᄋᆞ로 시름ᄃᆞ왼 ᄆᆞᄋᆞ미 딘ᄂᆞᆫ ᄃᆞᆺᄒᆞ믈 爲ᄒᆞ야 느치노라 少年努力縱談笑看我形容已枯槁져믄 사ᄅᆞᆷᄃᆞᆯ히 힘써 談笑ᄅᆞᆯ ᄀᆞ장ᄒᆞᄂᆞ니 내의 얼구를 보니 ᄒᆞ마 枯槁ᄒᆞ도다 座中薛華善醉歌歌辭自作風格老座中엣 薛華ㅣ 醉ᄒᆞ야셔 놀애 블로믈 잘ᄒᆞᄂᆞ니 歌辭를 제 지으니 風格이 老成ᄒᆞ도다 近來海內爲長句汝與山東李白好近來예 四海內예 긴 詩句ᄒᆞ리ᄂᆞᆫ 너와 山東앳 李白패 됴히ᄒᆞᄂᆞ니라 何劉沈

謝力未工才無鮑照愁絶倒 何遜劉孝綽沈約謝朓ᄂᆞᆫ皆能詩者ㅣ라此ᄂᆞᆫ言鮑照ㅣ見薛華ᄒᆞ면嘗愁絶而倒地也ㅣ라○何劉沈謝ᄂᆞᆫ힘ᄡᅥ도바지로이몯ᄒᆞ키니비지죄鮑照ᄅᆞᆯ無ᄒᆞ니시르며업드르리로다

諸生頗盡新知樂萬事終傷不自保 諸生ᄃᆞᆫ히ᄌᆞ모ᄆᆡ아ᄂᆞᆫ즐교ᄆᆞᆯ다ᄋᆞ건마ᄂᆞᆫ萬事ᄅᆞᆯᄆᆞᄎᆞ매내ᄆᆞᆫ디몯ᄒᆞᆯ가ᄉᆞᆯ노라

氣酣日落西風來願吹野水添金杯 氣運ㅣ흐ᄃᆞ거ᄂᆞᆯ히디고西風ㅣ오ᄂᆞ니願ᄒᆞᆫᄃᆞᆫᄆᆡ해므를부러金잔애더으고라

如澠之酒常快意亦知窮愁安在哉 左傳에有酒ㅣ如澠이라ᄒᆞ다○澠水곳ᄒᆞᆫ술로샹녜ᄠᅳ들훤케ᄒᆞ면ᄯᅩ아노

라 窮愁ㅣ며 되 이시리오 忽憶雨時秋井塌古人白骨生青苔如何不飮令心哀 忽然히 비 올 ᄢᅢ ᄀᆞᅀᆞᆳ 우믈 믈어딘 뎔 ᄉᆞ랑ᄒᆞ니 녯사ᄅᆞᆷ미 힌 뼈에 프른 이시 냇ᄂᆞ니 엇뎨 술 먹디 아니코 ᄆᆞᅀᆞ모로 ᄒᆡ여 슬ᄒᆞ리오

飮中八仙歌

知章騎馬似乘船眼花落井水底眠 浙人ㅣ 不喜騎馬ᄒᆞ고 喜乘船ᄒᆞᄂᆞ니라 ○ 知章의 ᄆᆞᆯ ᄐᆞ미 비ᄐᆞᆷ 곤ᄒᆞ니 누넷 고지 눈우므레 드러든 믈 미틔셔 ᄌᆞ오놋다 汝陽三斗始朝天道逢麴車口流涎恨不移封向酒泉 이ᄂᆞᆫ 수를 해 잇ᄂᆞᆫ 酒泉郡ᄋᆞ로 가디 몯ᄒᆞᄆᆞᆯ 恨

ᄒᆞᄂᆞ다ᄒᆞ니라○汝陽王은서말수를먹고
아비르서天子ᄭᅴ朝會ᄒᆞᄂᆞ니길헤누룩시
른술위ᄅᆞᆯ보아든이베ᄎᆞ믈흘리고封爵
을옮겨酒泉郡으로向ᄒᆞ디몯ᄒᆞ논이ᄅᆞᆯ슬
놋다 左相日興費萬錢飲如長鯨吸百川銜盃
樂聖稱避賢 左相은李適之라酒清者ㅣ爲聖이라適之詩예避賢初罷相
ᄒᆞ고樂聖且銜盃라ᄒᆞ다○左相은날마다
니러萬錢을費用ᄒᆞᄂᆞ니술머구믈긴고래
온넛믈마숌ᄀᆞ티ᄒᆞ야잔ᄂᆞᆯ머ᄀᆞ머셔몰곤
술ᄅᆞᆯ즐기고어딘사ᄅᆞᆷ몰避ᄒᆞ야노라니ᄅᆞ
놋다 宗之蕭灑美少年擧觴白眼望青天皎如
玉樹臨風前 崔宗之ᄂᆞᆫ조ᄎᆞᆯᄒᆞᆫ아ᄅᆞᆷ다온져믄소니니잔ᄋᆞᆯ드러셔힌누느

로프른하ᄂᆞᆯ홀ᄇᆞ라ᄂᆞ믈고미玉樹蘇晉長
ㅣᄇᆞᄅᆞᆷ갈퀴臨ᄒᆞ엿ᄂᆞᆫᄃᆞᆺᄒᆞ도다
齋繡佛前醉中往往愛逃禪 逃禪은逃去而禪坐也ㅣ라○
蘇晉은繡ᄒᆞᆫ부텨앏픠셔댱샹齋戒ᄒᆞᄂᆞ니
醉中에도므리므리예逃去ᄒᆞ야坐禪ᄒᆞ믈
ᄉᆞ랑ᄒᆞ놋다 李白一斗詩百篇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自稱臣是酒中仙 玄宗ㅣ泛白蓮
池ᄒᆞ야召李白ᄒᆞ시니時己被酒ㅣ러라○
李白은술ᄒᆞᆫ말먹고詩를一百篇곰ᄒᆞᄂᆞ니長
安ㅅ져젯숤지븨셔ᄌᆞ올어늘天子ㅣ브르고
신대ᄎᆞ재비예오ᄅᆞ디몯ᄒᆞ고제닐오ᄃᆡ臣
은이酒中엣仙人이로라ᄒᆞᄂᆞ니라 張旭三盃草聖傳脫帽露

頂王公前揮毫落紙如雲烟漢人張芝ㅣ善草書ㅣ어든謂之草聖ㅣ라ᄒᆞ니라○張旭은세잔머거든草聖을傳ᄒᆞᄂᆞ니王公ㅅ알퓌곳갈벗고니마ᄅᆞᆯ내야셔부늘휫두로더죠ᄒᆡ예디니雲烟ㅣᄀᆞᆺ도다

焦遂五斗方卓然高談雄辯驚四筵焦遂ᄂᆞᆫ임더도디술醉면말ᄉᆞᆷ을잘ᄒᆞᄂᆞ니라

○焦遂ᄂᆞᆫᄀᆞᆺ말먹고다뫼야ᄒᆞ로모ᄋᆞ미卓然ᄒᆞᄂᆞ니노픈말ᄉᆞᆷ과雄壯ᄒᆞᆫ말ᄉᆞᆷ미四面ㅅ돗긧사ᄅᆞ몰놀내ᄂᆞ니라

遣田父泥飲ᄒᆞ니美嚴中丞라ᄒᆞ더

步屧隨春風村村自花柳屧은草屨也ㅣ라○안신고거러봄

보ᄅᆞᆷ조초 니ᄆᆞ올마다 절로 곳과 비들 뫼뎃도다 田翁逼社日邀我賞春酒 田家옛한아비社日에갈곱거ᄂᆞᆯ 나ᄅᆞᆯ마자드려봄수를맛뵈ᄂᆞ다 酒酣誇新尹畜眼未見有ㅣ라 尹은成都尹嚴武也 ○수를醉ᄒᆞ야 새尹을자랑ᄒᆞ고귀뒷논누네 내이쇼ᄆᆞᆯ보디몯ᄒᆞ얫노라ᄒᆞᄂᆞ니 中이더 迴頭指大男渠是弓弩手名在飛騎籍長番歲時父 弓弩手ᄂᆞᆫ言兵卒也ㅣ라飛騎ᄂᆞᆫ軍名이라 ○머리ᄅᆞᆯ도로혀큰아ᄃᆞᄅᆞᆯᄀᆞᄅᆞ쵸ᄃᆡ 제이弓弩ㅣ가진소니니일후미飛騎人글위러잇ᄂᆞ니長番셔ᄂᆞᆫ歲時ㅣ오라니라 前日放營農辛苦救衰朽 前日에노하녀름짓게ᄒᆞ야ᄂᆞᆯ辛苦ᄅᆞᆯ이

늘근나ᄅᆞᆯ 救護ᄒᆞᄂᆞ다

差科死則已誓不擧家走 差科ᄂᆞᆫ 謂差役이라○差科ᄂᆞᆫ 주거아 마로리니 盟誓ᄒᆞ려니 지비 다 逃走티 마니호리라

今年大作社拾遺能住否 拾遺ᄂᆞᆫ 甫ㅣ라○올히ᄂᆞᆫ 키 社祭ᄅᆞᆯ 호리니 拾遺ᄂᆞᆫ 能히 머믈다 말다

呼婦開大瓶盆中爲吾取 겨지블 블러 큰 瓶을 여러 盆中엣 수를 날 爲ᄒᆞ야 가져오ᄂᆞ다

感此氣揚揚須知風化首 風化ᄂᆞᆫ 猶教化也ㅣ라○此ᄂᆞᆫ 言可知新尹之風化也ㅣ라○기사ᄀᆞᄋᆡ 氣運ㅣ 揚揚호믈 感激ᄒᆞᄂᆞ니 모로매 風化ᄯᅳᆺ 위두ᄒᆞ니ᄅᆞᆯ 이랄디로다

語多雖雜亂說尹終在口 말ᄉᆞ미 하 비록 雜亂ᄒᆞ나 尹의 일ᄇᆞᆫ 오ᄆᆞᆫ ᄆᆞᄎᆞ

매이예 잇도다

朝來偶然出自卯將及酉 아ᄎᆞᆷ의 偶然히 나 卯時로브터 장ᄎᆞᆺ 酉時예 밋과라

久客惜人情如何拒隣叟 오래 나그내ᄃᆞ외야쇼매 人情을 앗가노니 엇뎨 이웃짓 아비ᄅᆞᆯ 믈리와ᄃᆞ리오

高聲索果栗欲起時被肘 노ᄑᆞᆫ 소리로 果栗을 어더오라 ᄒᆞᄂᆞ니 니로리라 ᄒᆞ야가 時로 ᄇᆞᆯ로ᄀᆞᄅᆞ ᄡᅳ리ᄃᆞᆯ니부라

指揮過無禮未覺村野醜 指揮ᄒᆞ이 너무 禮 업던 아닌 村野ㅅ 사ᄅᆞᄆᆡ 더러우믈 아디 몯ᄒᆞ가로다

月出遮我留仍嗔問升斗 ᄃᆞ리 돋거늘 나ᄅᆞᆯ ᄀᆞ리와 머믈워셔 지ᄌᆞ로 怒ᄒᆞ야 升을 머글가 斗ᄅᆞᆯ 머글가 묻ᄂᆞ다

陪王侍御ᄒᆞ야同登東山最高頂ᄒᆞ야宴ᄒᆞ다

姚通泉ㅣ晩애携酒泛江ᄒᆞ다

姚公美政誰與儔不減昔時陳大丘 後漢人陳寔ㅣ爲大丘長ᄒᆞ니라 ○姚公이아ᄅᆞᆷ다온政治ᄅᆞᆯ뉘다ᄆᆞᆺᄧᅡᆨ가ᄃᆞ외리오녯ᄢᅴ陳大丘의게덜디아니ᄒᆞ도다

邑中上客有柱史多暇日陪驄馬遊 驄馬ᄂᆞᆫ御史人所乘이라 ○ᄀᆞ올안햇노ᄑᆞᆫ손ᄋᆡ柱史ㅣ잇ᄂᆞ니해閑暇ᄒᆞᆫ서ᄂᆞᆯ아다驄馬ᄅᆞᆯ뫼ᅀᆞ노ᄂᆞ라

東山高頂羅珍羞下顧城郭銷我憂 東녁뫼노ᄑᆞᆫ그ᄃᆡ貴ᄒᆞᆫ차반ᄋᆞᆯ버리니城郭ᄋᆞᆯᄂᆞ리와다보고내시르믈ᄉᆞ로

라 清江白日落欲盡復携美人登綵舟 ᄆᆞᆰ고 ᄀᆞᄅᆞ매 白日ㅣ 디여가거ᄂᆞᆯ ᄯᅩ 고온 사ᄅᆞ믈 자바 빗난 비예 오ᄅᆞ노라 笛聲憤怒哀中流妙舞逶迤夜未休 뎟소리 憤怒ᄒᆞ야 믌가온ᄃᆡ셔 슬프니 微妙ᄒᆞᆫ 추믈 횟두루뎌 밤 ᄃᆞ록 마디 아니ᄒᆞ노라 燈前往往大魚出聽曲低昻如有求 븘 알ᄑᆡ 므리므리예 굴근 고기 나 놀애 듣고 ᄀᆞᄇᆞ락 ᄂᆞᆺ가락ᄒᆞ야 求ᄒᆞ미 잇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三更風起寒浪湧取樂喧呼覺船重 三更에 ᄇᆞᄅᆞ미 니러 ᄎᆞᆫ 믌겨리 소소니 즐거우믈 取ᄒᆞ야 브르시져 ᄇᆡ 므거 滿空星河光破碎四座賓客

色不動 言風起浪湧故로 星河ㅣ破碎也ㅣ라 ◦屋空애 그득ᄒᆞ얏ᄂᆞᆫ 星河ㅅ 비치 므어디옛거ᄂᆞᆯ 四座앳 손ᄃᆞᆯ히 ᄂᆞᆺ비ᄎᆞᆯ 뮈우디 아니ᄒᆞᄂᆞ다

請公臨深莫相違回船罷酒上馬歸 此上言莫違如臨深 謂之戒ᄒᆞ야 早還也ㅣ라 ◦請ᄒᆞᆫ든 그듸ᄂᆞᆫ 기픈 ᄃᆡ 臨ᄒᆞᆫ ᄆᆞᆯ셔르 違ᄒᆞ디 마라 ᄇᆡ 도ᄅᆞ고 술 머굼 ᄆᆞᆺ고 ᄆᆞᆯ ᄐᆞ고 도라갈디니라

人生歡會豈有極無使霜露霑人衣 人生애 즐거 會集ᄒᆞ요ᄆᆞᆫ 어느 그지 이시리오 셔리와 이슬로 ᄒᆡ여 사ᄅᆞ미 오ᄉᆞᆯ 저지게 마ᄅᆞᆯ디니라

冬末애 以事之東都ᄒᆞ다가 湖城애 遇孟

雲卿ᄒᆞ야復歸劉顥宅ᄒᆞ야宿宴飮ᄒᆞ고散ᄒᆞᆯ제

因爲醉歌ᄒᆞ노라

疾風吹塵暗河縣行子隔手不相見이ᄂᆞᆫ甚言塵暗之狀ᄒᆞ다○ᄲᆞᄅᆞᆫᄇᆞᄅᆞ미드트를부러河陽ㅅᄀᆞ올히어드워시니길디ᄂᆞᆫ사ᄅᆞ미손ᄀᆞ리올만ᄒᆞᆫ뒤셔서르보디몯ᄒᆞ리로다

湖城城南一開眼駐馬偶識雲卿面湖城人城南애ᄒᆞᆫ번누늘ᄠᅧᄆᆞᄅᆞᆯ머믈워偶然히雲卿의ᄂᆞᄎᆞᆯ아라보라

向非劉顥爲地主嬾迴鞭轡成高宴만일劉顥ㅣ어ᄯᅡ핫님재히ᄃᆞ외디아니ᄒᆞ야시면鞭轡ᄅᆞᆯ날호야돌아와노ᄑᆞᆫ이바디ᄅᆞᆯ일

위리아

劉侯歎我携客來置酒張燈促華饌 劉侯ㅣ 내의 손 더브러 오믈 깃거 술를 노ᄒᆞ며 블 혀고 빗난 차반ᄋᆞᆯ 뵈야ᄂᆞ다

且將款曲終今夕休語艱難尚酣戰 酣戰은 指安史之亂ᄒᆞ다 ○ 任款曲ᄒᆞᆫ ᄆᆞᄋᆞᄆᆞᆯ 가지셔 오ᄂᆞᆳ 바ᄆᆞᆯ ᄆᆞᆺ고 艱難애 오히려 ᄒᆞ들히 자ᄒᆞᄆᆞᆯ란 니ᄅᆞ디 마ᄅᆞᆯ디로다

照室紅爐促曙光縈窓素月垂文練 지븨 비취엿ᄂᆞᆫ 블근 火爐ᄂᆞᆫ 새배 비츨 뵈야고 窓의 버므렛ᄂᆞᆫ ᄒᆡᆫ ᄃᆞᆳ 비츤 빗나기 비드렷ᄂᆞᆫ 돗도다

天開地裂長安陌寒盡春生洛陽殿 此ᄂᆞᆫ 言冬盡而春將至也ㅣ라 ○ 長安ㅅ 두들겐 하ᄂᆞᆯ히 열며 ᄯᅡ히 ᄠᅥ디고 洛陽宮殿엔 치위 다ᄋᆞ고 보

미나놋다 豈知驅車復同軌可惜刻漏隨更箭이뇨

오ᄂᆞᆯ ᄒᆞᆫ 길헤 同行ᄒᆞᆯ 돌 어느 알리오 ᄯᅩ 바미 셜리 새ᄂᆞ니 明日還別이 ᄉᆞᆯ프도다 ᄒᆞ니라 ○어느 ᄉᆞᆯ위를 모라 ᄯᅩ 자최ᄂᆞᆯ 同ᄒᆞᆯ고 ᄃᆞᆯ 알리오 可히 ᄉᆞᆯ프도다 漏刻이 更點사로 좃놋다

人生會合不可常庭樹鷄鳴淚如綫人生애 모다ᄉᆞ미 던던디 아니ᄒᆞ니 ᄠᅳᆯ헷 남긔셔 ᄃᆞᆰ기 울어 ᄂᆞᆯ 눉므를 실 ᄀᆞ티 ᄒᆞ노라

鄭駙馬宅宴洞中

主家陰洞細烟霧留客夏簟青琅玕公主人 짒 어ᄃᆞ ᄒᆞᆫ 고ᄅᆡᆺ ᄀᆞᄂᆞᆫ 烟霧ㅣ 션ᄂᆞ니 손 머믈우ᄂᆞᆫ 녀릆 사ᄃᆞᆫ 프른 琅玕 ᄀᆞᆮ도다 春酒盃

濃琥珀薄氷漿椀碧碼磂寒 以琥珀爲盃오碼磂爲椀也ㅣ라○븕수리잔애둣거우니.琥珀이엷고氷漿다믄椀이프르니碼磂ㅣ서늘ᄒᆞ도다

悞疑茅堂過江麓已入風磴霾雲端 茅堂을ᄀᆞᄅᆞᆷ묏그틀디나아갈가외오疑心ᄒᆞ더니ᄇᆞᄅᆞᆷ부ᄂᆞᆫ돌ᄃᆞ릿구룸무틴그ᄃᆡᄒᆞ마드노라

自是秦樓壓鄭谷時聞雜佩聲珊珊 秦女弄玉이吹簫樓上ᄒᆞ고鄭子真이耕於谷口ᄒᆞ니此ᄂᆞᆫ言公主ㅣ在鄭駙馬家故로聞佩玉聲也ㅣ라○스늬로이秦入樓ㅣ鄭谷에臨壓ᄒᆞ야질서時로雜佩소리珊珊호믈듣노라

丶崔駙馬山亭宴集

蕭史幽棲地林間踏鳳毛蕭史ㅣ娶秦女弄玉乘鳳而去ᄒᆞ니다ᄡᅳ는雀駙馬로比蕭史ᄒᆞ다○蕭史의幽棲ᄒᆞ얏는ᄯᅡ해수플ᄉᆞ이예鳳의터리를ᄇᆞᆲ노라洑流何處入亂石閑門高洑은回流也ㅣ라○횟도로ᄒᆞ르는므른어드러셔드러오ᄂᆞ뇨어즈러운돌해다돈門이노퍼도다客醉揮金椀詩成得繡袍唐武后ㅣ使宋之問等으로賦詩ᄒᆞ야詩先成者ㅣ得錦袍ᄒᆞ니라○소니醉ᄒᆞ야셔金椀올더디고詩句ㅣ이러繡袍ᄅᆞᆯ연놋다請秋多宴會終日困香醪ᄆᆞᆯᄀᆞᆫᄀᆞ올ᄒᆡ이바디호미하나나리모ᄃᆞᆨ록곳다온수레困호라

鄭駙馬池臺喜遇鄭廣文同飮

不謂生戎馬何知共酒盃 비祿山의亂ᄒᆞᆯ고 돌들라니오ᄂᆞᆯ서르볼주를엇디알리오ᄒᆞ니祿山之亂애鄭處을여희엿다가다시보고니ᄅᆞ논마리라 ○戎馬들나리라디기디ᄅᆞᆫᄒᆞ야니 어느盞잔글다뭇ᄒᆞᆯ고돌알리오

燃臍郿塢敗握節漢臣回 郿塢ᄂᆞᆫ董卓의사던듸니 呂布ㅣ殺卓ᄒᆞ고燃火卓니臍ᄒᆞ니比祿山之亡也ㅣ라蘇武ㅣ杖節使匈奴而還ᄒᆞ니比鄭處이陷賊中而迯來也 ㅣ라○빗블에블브터郿塢이敗ᄒᆞ니 節을자븐漢ㅅ臣下ㅣ도라오도다

白髮千莖雪丹心一寸灰 言鄭處也ㅣ라○헨머리ᄂᆞᆫ즈믄줄기ᄂᆞᆫ곤고

블곤ᄆᆞᄋᆞ믄 ᄒᆞ이 저곤도다

一別離經死地 披寫忽登臺 여회요매 주글ᄯᅡᄒᆞᆯ 디내니 ᄆᆞᄋᆞ몰 쾨 忽然히 臺예 오로노라

重對秦蕭發 俱過阮宅來 重對ᄂᆞᆫ 甫ㅣ 再來也ㅣ라 秦蕭ᄂᆞᆫ 用蕭史事ᄒᆞ다 謝馬ᄂᆞᆫ 鄭虔之姪 故로 用阮籍의 姪 阮咸事ᄒᆞ다 ○秦入ᄋᆡ 릿소리를 다시 對ᄒᆞ고 阮咸의 지븨 ᄒᆞᆫᄢᅴ 다나오라

留連春夜舞 淚落強徘徊 머므러셔 봆 바ᄆᆡ 春처ᄂᆞᆫ 므리 드ᄅᆡ거늘 고ᄃᆞᆯ 과머므노라

、陪李金吾花下飮

勝地初相引 徐行得自娛 됴ᄒᆞᆫ ᄯᅡ해 처엄 서르 혀오나ᄂᆞᆯ 날호

야거러ᄉᆞ싀로娛樂ᄒᆞ몰어두라 見輕吹鳥毳隨意數花鬚

가ᄇᆡ야온것보아ᄃᆞᆫ새터리ᄅᆞᆯ불오ᄠᅳ들조차셔곳여의ᄅᆞᆯ혜노라 細草稱偏坐香醪懶再沽

ᄀᆞᄂᆞᆫ프리기우시안조매마ᄌᆞᆨ니곳다온수를다시사믈게올이ᄒᆞ야리아 醉歸應犯夜可怕李金吾 金吾ᄂᆞᆫ掌夜禁ᄒᆞᄂᆞ니此ᄂᆞᆫ譏李金吾ᄒᆞᄂᆞ니라○醉코가매당당이바ᄆᆞᆯ犯ᄒᆞ리로소니李金吾ㅣ可히저프도다

╲宴胡侍御書堂 甫ㅣ自註李尚書之芳과鄭秘監審으로同集호라

江湖春欲暮牆宇日猶微 江湖앤 보미 늘거가ᄂᆞ니 牆宇앤 ᄒᆡᆺ비치 오히려 微微ᄒᆞ도다

闇闇書籍滿輕輕花絮飛 어득히 書籍이 ᄀᆞ득ᄒᆞ얫고 가비야이 곳과 柳絮왜 ᄂᆞᄂᆞ다

翰林名有素墨客興無違 翰林은 일후미 본ᄃᆡ로 잇고 글 스ᄂᆞᆫ 소ᄂᆞᆫ 興心이 어긔릇디 아니ᄒᆞ도다

今夜文星動吾儕醉不歸 오ᄂᆞᆳ 바미 하ᄂᆞᆯ해 文星이 뮈ᄂᆞ니 우리 무리 醉ᄒᆞ야 도라가디 몯ᄒᆞ소라

書堂애 飲ᄒᆞ고 既夜ᄂᆞᆫ 이어 復邀李尚書ᄒᆞ야 下馬ᄒᆞ야 月下애 賦絶句호라

湖上林風相與清殘樽下馬復同傾구룸우희수프렛ᄇᆞᄅᆞ미서르다뭇ᄆᆞᆯᄀᆞ니기렛ᄂᆞᆫ수를ᄆᆞᆯ를브려ᄯᅩᄒᆞᆫ듸기우려먹노라久拚野鶴如雙鬢遮莫鄰鷄下五更이ᄂᆞᆫ늘거셰곰도ᄆᆞᄋᆞ메셜이너기디아니ᄒᆞ야ᄇᆞ리며밤사여감도ᄀᆞ던히너기노라ᄒᆞ니라○더햇鶴이두귀밋ᄀᆞᆫᄒᆞ고몰오래ᄇᆞ리고이웃집ᄃᆞᆯ기五更에ᄂᆞ료ᄆᆞᆯ므던히너기노라

、春夜峽州田侍御長史津亭留宴得筵字

北斗三更席西江萬里船北斗ㅣ비취엿ᄂᆞᆫ三更人돗기오西人

녀ᄀᆞᆳ萬里옛비로다 杖藜登水榭揮翰宿春天 도ᄐᆞ랏다

펴므렛亭榭에오ᄅᆞ고붇횟두로 더글스고ᇝ하ᄂᆞᆯ해셔자노라 白髮須多

酒明星惜此筵 ᄉᆡᆫ머리예한수를須求ᄒᆞ고 새며레이이바디ᄅᆞᆯ앗기노

라 始知雲雨峽忽盡下牢邊 下牢ᄂᆞᆫ地名이라이ᄂᆞᆫ神女襄

王의노던ᄯᅡ히여와ᄆᆞᆺ춘서오ᄂᆞᆳ歡娛도ᄆᆞᆺ ᄂᆞᆺ다ᄂᆞ니ᄅᆞᆯ시라ㅇ行雲行雨ᄒᆞᄂᆞᆫ峽이下牢

ᄉᆞᄀᆞ이忽然히盡ᄒᆞᄂᆞᆫ 고도비ᄅᆞᆺ서알와라

〻陪王侍御宴通泉東山野亭

江水東流去淸樽日復斜 ᄀᆞᆳᄆᆞ리東녀ᄀᆞ로 로흘러가ᄂᆞ니몰

ᄅᆞᆫ酒樽에 ᄒᆞᆷᄯᅴ 기우러가놋다

異方同宴賞何處是京華 다ᄅᆞᆫ

뒤와이바다ᄅᆞᆯ ᄒᆞᆫ뒤호 ᄂᆡ거드뎨이셔 울헌고

亭景臨山水村煙對浦沙 亭子ㅅ景은 뫼과 므를 臨ᄒᆞ얏고 ᄆᆞ올니ᄂᆞᆫ 개옛 몰개ᄅᆞᆯ 對ᄒᆞ얏도다

狂歌過形勝得醉即爲家 어러운 놀애로 ᄒᆞᆫ 付ᄒᆞᆯ 맛나 醉호ᄆᆞᆯ 어두니 ᄭᅳᆫ내 지비 ᄃᆞ외옛도다

丶宴王使君宅題二首

漢主追韓信蒼生起謝安 漢高ㅣ入關애 諸將ㅣ多ᄂᆞᆫ기어ᄂᆞᆯ 蕭何ㅣ追韓信ᄒᆞ니라 謝安이 高卧東山ᄒᆞ다가 爲蒼生起ᄒᆞ니라 ○漢人ᄂᆞᆫ 그미 韓信

을 退尋ᄒᆞ고 蒼生ㅣ謝 吾徒自飄泊世事各
安을 니르와ᄃᆞ니라
艱難 此ᄂᆞᆫ 言不如韓謝也ㅣ라○우리ᄆᆞᄅᆞᆫ
스ᄉᆡ로 두루브터 ᄃᆞᆫ녀 世上ㅅ 이레 제
여곰 艱難ᄒᆞ도다 逆旅招邀近他鄉意緖寬 逆旅ᄂᆞᆫ 客舍也
ㅣ라○逆旅에 브려 마조미 갓가오
니 다ᄅᆞᆫ ᄀᆞ올히 뎌 ᄠᅳ디 훤ᄒᆞ여라 不才甘
褐貧高卧豈泥蟠 甫ㅣ自謙也ㅣ라○저조
揚子애 龍蟠于泥라ᄒᆞ니
업서 서근 氣質을 ᄃᆞᆯ히 너기노니 노피 누
워쇼ᄆᆞᆯ 어느 ᄒᆞᆫᄀᆞ 서리여 이쇼미리오
況復容霜鬢留歡卜夜閑 다ᄇᆡ ᄉᆞ랑ᄒᆞ 베 센
사ᄅᆞᄆᆞᆯ 容許ᄒᆞ다
네 므ᄅᆞ셔 歡樂호ᄆᆞᆯ 바미
업서 가ᄆᆞᆯ 占卜ᄒᆞ노라 自吟詩送老相勸

酒開顔 내그르ᄅᆞᆯ이펴서늘구들보내노니 서르수를勸ᄒᆞ야서ᄂᆞᆫ즐여노라 戎

馬今何地鄕關獨在山 사호맷ᄆᆞᄅᆞᆫ이제어ᄂᆡ따해잇ᄂᆞᆫ고鄕關은ᄒᆞ올로뫼해잇도다 江湖墮清月酩酊任扶還 江湖애ᄃᆞᆯᄋᆞᆫ두리디거ᄂᆞᆯ醉ᄒᆞ고더위자며도라오ᄆᆞᆯ므던히너기노라

、宴戎州楊使君東樓

勝絶驚身老情忘發興奇 됴ᄒᆞᆫ싸해서모ᄆᆡ늘구믈놀라노니ᄠᅳ들ᄀᆞ조니興心의나미奇異ᄒᆞ도다 座從歌妓密樂任主人為 안잿ᄂᆞᆫ뒤놀애브르ᄂᆞᆫ妓女ㅣ密近호ᄆᆞᆯ므던히너기고즐거우ᄆᆞᆫ主人의ᄒᆞ요

몰任意로 귀ᄒᆞ노라

重碧拈春酒輕紅擘荔枝 므겁고 프ᄅᆞ니란 봀수를 잡고 가비얍고 블그니란 荔枝를 ᄈᆡ혀노라

樓高欲愁思橫笛未休吹 樓ㅣ 노파 시름ᄒᆞᆯ ᄃᆞᆺᄒᆞ니 빗기 자ᄇᆞᆫ 뎌홀 부루믈 마디 아니ᄒᆞᄂᆞ다

、季秋蘇五弟纓이 江樓에 夜宴崔十三評事와 韋少府姪호라 三首

峽險江驚急樓高月逈明 峽이 險ᄒᆞ니 ᄀᆞᄅᆞᄆᆡ 놀라이 ᄲᆞᄅᆞ고 樓ㅣ 노파 ᄃᆞ리 아ᄋᆞ라히 ᄇᆞᆰ도다

一時今夕會萬里故鄕情 一時예 오ᄂᆞᆳ 나죗 會集이여 萬里예 故鄕앳 ᄠᅳ디로다

星落黃姑渚秋

辭白帝城 黃姑諸ᄂᆞᆫ 在巫峽ᄒᆞ니라○벼르 黃姑ㅅ 㝡ᄆᆡ이더고 ᄀᆞ올ᄒᆡ 白帝城

을 ᄇᆞᆯ오 가놋다 老人因酒病堅坐看君傾 老人ᄋᆞᆫ 甫ㅣ라○늘

근사ᄅᆞ몬 衰病을 回ᄒᆞ야 구디 안자셔 그ᄃᆡ내 기우려 머구믈 보노라

明月生長好浮雲薄漸遮 ᄇᆞᆯ곤ᄃᆞ리 도다 기리 됴ᄒᆞ니 ᄠᅳᆫ 구루

미 열위 漸漸 ᄀᆞ리오놋다 悠悠照邊塞悄悄憶京華 悠悠히 ᄀᆞ

이 비취여 잇ᄂᆞ니 슬피 셔울흘 ᄉᆞ랑ᄒᆞ노라 清動盃中物高隨海

上槎 西海人浮查上애 有光이 如星月ᄒᆞ니 名貫月查ㅣ라○믈ᄀᆞᆫ 비치 盞 가온ᄃᆡᆺ

수레 뮈오 노피 바ᄅᆞᆯ 우흿 ᄠᅳᆫ 구를 좃노다 不眠瞻白兔百過落烏

紗烏紗ᄂᆞᆫ帽也ㅣ라 이ᄂᆞᆫ 돌보노라 올위니 곳가리 버서 딘시라 ○ 조오디 아니ᄒᆞ야
셔 ᄒᆡᆫ 돗기ᄅᆞᆯ 보노라 곳갈 버서 ᄃᆡ요ᄆᆞᆯ 온 버ᄂᆞᆯ 다 내노라

對月那無酒登樓況有江 ᄃᆞᆯ 對ᄒᆞ야셔 엇뎨 수리 업서리아 樓의 올오니 ᄒᆞ믈며 ᄀᆞᄅᆞᆷ도 잇도다

聽歌驚白鬢笑舞拓秋窓 拓ᄋᆞᆫ 手推物也ㅣ라 此ᄂᆞᆫ 甫ㅣ 自謂라 ○ 놀예 든고 ᄒᆡᆫ 귀미톨 놀라고 우ᅀᅳ며 춤처셔 ᄀᆞᄋᆞᆳ 窓ᄋᆞᆯ 열티노라

樽蟻添相續沙鷗竝一雙 樽엣 수ᄅᆞᆯ 더르나 어려으노니 몰애옛 ᄀᆞᆯ며기ᄂᆞᆫ ᄒᆞᆫ 雙이 ᄀᆞᆯ와 안잿도다

盡憐君醉倒更覺片心降 다 그듸ᄅᆞᆯ ᄉᆞ랑ᄒᆞ야셔 醉ᄒᆞ야 엽드로니 죠고맛 ᄆᆞᅀᆞ미 降호ᄆᆞᆯ ᄯᅩ

알와라

丶劉九法曹鄭瑕丘石門宴集 瑕丘ᄂᆞᆫ縣名이오石門은地名이니在齊州ᄒᆞ다

秋水清無底蕭然淨客心 清無底ᄂᆞᆫ ᄉᆞᄆᆞᆺ ᄆᆞᆯ가 ᄆᆞᆰ미 티 업서 뵐시라○ ᄀᆞᅀᆞᆳ 므리 ᄆᆞᆯ가 미티 업스니 蕭然히 소ᄂᆡ ᄆᆞᅀᆞᄆᆞᆯ 조케ᄒᆞ놋다 掾曹乘

逸興鞍馬倒荒林 掾曹ㅣ 放逸ᄒᆞᆫ 興을 타 鞍馬로 거츤 수프레 왯도다

能吏逢雙璧華筵直一金 一金은 一鎰이니 三十兩也ㅣ라○ 能ᄒᆞᆫ 官吏ᄅᆞᆯ 두 구스를 맛보니 빗난 이바디 노ᄒᆞᆫ 金이 ᄉᆞ노다 晚來橫吹好

舩下亦龍吟 이는 뎌 소리 듣고 믈 아래 이셔 龍吟ᄒᆞᄂᆞ다 니ᄅᆞ니라 ○나조
ᄒᆡ ᄇᆡᆺ 기자바 부는 뎌 소리도 ᄒᆞ 니 글 아래셔 作龍도 음놋다

、與鄠縣源大少府宴渼陂得寒字

應爲西陂好金錢罄一飡 당당이 西陂의 됴 호ᄆᆞᆯ 爲ᄒᆞ야 金돈
ᄂᆞᆯ ᄒᆞᆫ 번 머구 내 ᄆᆞᆺ도다 飯抄雲子白瓜嚼水精寒 雲子 는菰
米飯이라 ○바ᄇᆞ란 雲子ㅣ 희니ᄅᆞᆯ ᄀᆞ리 任교 외라는 水精이 ᄎᆞᆫ 듯ᄒᆞ니ᄅᆞᆯ 시부라 無
計回船下空愁避酒難 ᄇᆡᄅᆞᆯ 돌아 ᄂᆞ려갈 예 아료매 엽스니 술 避
호며 어려우믈 ᄒᆞᆫ 갓 시름ᄒᆞ노라 主人情爛熳持荅翠琅玕

古詩예主人이贈我青琅玕이라ᄒᆞ니此ᄂᆞᆫ言主人의厚意ᄅᆞᆯ作此詩ᄒᆞ야以報之也ㅣ라○主人이ᄠᅳ디므르노ᄀᆞ니프른琅玕을가져對答ᄒᆞ노라

丶和江陵宋大少府ㅣ暮春雨後에同諸公及舍弟ᄒᆞ야宴書齋ᄒᆞ노라

渥洼汗血種天上麒麟兒 此ᄂᆞᆫ比諸公ᄒᆞ다○渥洼므렛피ᄯᆞᆷ내ᄂᆞᆫ種類ㅣ오하ᄂᆞᆯ우혯麒麟의삿기로다 才士得神秀書齋而爲 才士ㅣ神秀ᄒᆞᆫ氣運을어뎃ᄂᆞ니書齋예서너희ᄒᆞᄂᆞᆫ이를듣노라 棣華晴雨好綵服暮春宜 常棣之華ᄂᆞᆫ宴兄弟之詩오綵衣ᄂᆞᆫ老萊子의

斑斕衣也ㅣ라○常擧ᄉᆞ고지괴비예朋酒
五ᄒᆞ니빗난오ᄉᆞᆫ暮春에맛당ᄒᆞ도다中朋酒

日歡會老夫今始知矣
兩樽日朋이라老夫ᄂᆞᆫ
帝ㅣ라○朋酒로날마
다즐겨會集ᄒᆞ노소니늘근
노미이제비로서알와라

、夜宴左氏莊

風林纖月落衣露淨琴張
ᄇᆞᄅᆞᆷ부ᄂᆞᆫ수프레
ᄀᆞᄂᆞᄃᆞ리디니오
새이ᄉᆞ레조ᄒᆞᆫ
거믄고ᄅᆞᆯ펴락
暗水流花徑春星帶草堂
어
드
윤뒤ᄆᆞ르ᄅᆞᆫ곳핀길헤흐르고
봄벼ᄅᆞᆫ새지븨여찻도다
檢書燒燭短看
劍引盃長
書冊올檢察ᄒᆞ노라ᄒᆞ야燭올ᄉᆞ
劍각더르게ᄒᆞ고갈보노라ᄒᆞ야술

잔허믈기리ᄒᆞ라

詩罷聞吳詠扁舟意不忘 吳ᄂᆞᆫ水國일서聞其詠ᄒᆞ고欲乘舟而遊也ㅣ라○그를ᄆᆞᆺ고吳ㅅ사ᄅᆞ미입ᄂᆞᆫ소리ᄅᆞᆯ드로니죠고맛ᄇᆡᄐᆞ고젓ᄠᅳ들닛디몯ᄒᆞ리로다

、王十五前閣會

楚岸收新雨春臺引細風 楚ㅅ두들게새비가ᄃᆞ니봆臺예ᄀᆞᄂᆞᆫᄇᆞᄅᆞᄆᆞᆯ혀라

情人來石上鮮鱠出江中 ᄠᅳᆮᄀᆞᄐᆞᆫ사ᄅᆞ미돌우희오ᄂᆡ新鮮ᄒᆞᆫ鱠ᄂᆞᆫᄀᆞᄅᆞᇝ가온ᄃᆡ셔나ᄂᆞ다

鄰舍煩書札肩輿強老翁 이웃지븨셔글워ᄅᆞᆯ어즈러이ᄒᆞᆯᄉᆡ肩輿ᄐᆞ라ᄂᆞᆯ근한아비고ᄃᆞᆯ파ᄒᆞ오라

病

身虛倦味何莘餧兒童 言甫ㅣ病ᄒᆞ야不能食倦衰之味故로持以歸遺兒子也ㅣ라○病ᄒᆞ모매ᄃᆞ호아ᄉᆞᆷ虛ᄒᆞ니엇던莘ᄋᆞ로아ᄒᆡ돌ᄒᆡ비브르머글고

獨酌

步屧深林晩開樽獨酌遲 기픈수픐나죄힝신신고거러酒樽을여러ᄒᆞ오아브어머구믈기리호라

仰蜂粘落絮行蟻上枯梨 行은行列之行이라○울워러ᄂᆞᆫ벌ᄋᆞᆫ디ᄂᆞᆫ柳絮에브르ᄃᆞᆺ고줄혀ᄃᆞ니ᄂᆞᆫ개야미ᄂᆞᆫ이운ᄇᆡ남기오ᄅᆞ놋다

薄劣慚眞隱幽偏得自怡 사오나와眞實

人隱居ᄒᆞᆫ사ᄅᆞ로ᄆᆞᆺ그리노니幽深ᄒᆞ야 本無
며偏僻ᄒᆞᆯ서시러곰내즐겨ᄒᆞ노라
軒冕意不是傲當時 本來로軒冕ᄒᆞᆯᄠᅳ디업
슬ᄲᅮ니언뎡이當時를
傲慢히ᄒᆞ논
디아니라

、獨酌成詩

燈花何太喜酒綠正相親 西京雜記예目瞤
은得酒ㅣ오燈花
ᄂᆞᆫ得錢財라ᄒᆞᄂᆞ다○燈花ㅣ ᄌᆞ모ᄀᆞ장 醉裏
곳보니프른술를正히서르親히호라
從爲客詩成覺有神 醉ᄒᆞ야셔나그내ᄃᆞ외
야쇼ᄆᆞᆯ므던히너기고
그리일어ᄂᆞᆯ神ᄒᆞᆷ
이쇼ᄆᆞᆯ아노라 兵戈猶在眼儒術豈謀身

兵戈ㅣ오히려누네차ᄂᆞ니 儒術은 어느 모ᄆᆞᆯ ᄢᅢᄒᆞ리오 苦被微官縛低頭愧野人 죠고맛 벼스릐 얽미요ᄆᆞᆯ 심히 ᄒᆞ니 비셔 머리ᄅᆞᆯ 수겨 野人을 붓그리노라

分類杜工部詩卷之十五

山有花

魚有河

自太古